

2026.03
M a r c h

**중국
창업**

MONTHLY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hina.org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주요활동



1. 투자 매칭&기업가 포럼

혁신기업 K-Demo Day

- 매분기 산업별로 진행, 매년 5~6회
- 바이오헬스, 저탄소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인공지능,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과기부 12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집중
- 한국 혁신기업과 중국 VC와의 매칭 플랫폼 구축 투자 및 융자 촉진

한중 과학기술 교류포럼

- 중국 4대 국가급 포럼 및 한중 과학기술 포럼 개최
- 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 공동주최

중국 진출에 필요한 전략적 네트워크 제공

전략적 협력 지역 : 5대 도시권

- 장 진 지 : 베이징, 천진 및 허베성 포함 북방 경제 중심지
- 웨강야오 : 광저우, 선전, 홍콩 등 과학기술 및 글로벌 중심지
- 장강삼각주 : 상하이, 난징, 쑤저우 등 글로벌 경제 중심지
- 창 위 : 충칭, 쓰촨 등 서부 경제 중심지
- 장강중류 : 우한, 창사 등 중부 경제 중심지

2.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CHINA·夢"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 혁신기술 기반의 기술 위주로 중국에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가
- 중국 진출에 필요한 법인설립, 창업교육 등 지원

"CHINA·路"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 혁신기술 기반의 기술 위주로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가
- 중국 진출에 필요한 법인설립, 창업교육 등 지원
- 법률, 재무, 세무, 상표, 특허 신청 등 지원

3. 창업경진대회&창업교육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 KIC중국창업경진대회
- 한중일 청년혁신 협력 비즈니스 매칭 콘테스트
- CHUCOOL 2025 글로벌창업경진대회 [한국 협력기관]
- 골든팬더 글로벌혁신창업대회(주관기관)

창업 심화교육 K-Maker Day

- 창업을 희망하는 한국 학생과 창업자분들에게 1주일 간의 창업 실무교육과 산업시찰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 1회 진행

4. 한중 혁신산업 정보제공

중국 창업주간/월간 발행

한 주/달 단위로 한국 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 창업 관련 언론사에 정보 제공(5,000명 이상)

- Weekly 뉴스** 중국 창업 관련 핫 이슈 및 주요 투자 동향
- CHINA 창업** 중국 하이테크 기업 소개, 하이테크존 소개
외국기업 유치 정책 정리
- KIC 뉴스** KIC중국 행사 홍보, 교육 프로그램 소개
현지 협력 기관 교류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CONTENTS

KIC 중국 월간 컬럼

중국에서 합자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 1

산업 트렌드

로봇이 춤추고 AI 가 연출한다... 2026 년 춘절, 기술이 빛은 새로운 명절 풍경 8

2025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백서: 두뇌와 신체의 융합, 피지컬 AI 혁명의 시작 13

출하량의 90% 차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속화 배경 21

집단 지능으로 여는 새 시대, '가치 중심 글로벌 진출'에 나선 중국 기업들 24

2026 년 중국 양화: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시 27

중국 경제의 새 엔진 '신질생산력', 미래 산업에 올인하는 이유는? 32

휴머노이드 로봇 '테니스 선수' 등장, 사전 프로그래밍 없이 장거리 랠리 구현 35

'랍스터 열풍'이 촉발한 'DIY 경제' 트렌드 41

기업 리서치

범용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미니맥스(稀宇科技) 46

소비자 전자, 스마트 제조 기업-샤오미(小米) 51

범용 대형 모델 개발 스타트업-스텝편(阶跃星辰) 54

인공지능 기업-바이촨 인텔리전스(百川智能) 56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링이완우(零一万物) 58

기술 기반 유통 사업 기업-메이투안(美团) 61

시장 인사이트

오르도스 하이테크구 65

선양 하이테크구 67

KIC 중국 포커스

2026 중관춘포럼: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 포럼 성황리 개최 69

KIC 중국, 『AI 혁신의 심장, 중국 5 대 도시군』 발간 71

전시회 소식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73

[월간 칼럼] 중국에서 합자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



박재영 (한국 변호사 / 중국 외국법 고문)

現한국 법무법인 DLG 파트너 변호사 및 중국 JunZeJun Law Offices(君泽君律师事务所)에 상주하며 외국법 고문으로서 중국 데스크를 운영하며, 한중 합작 계약, 지분 투자, 인수합병, 중국 내 개인정보/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국제무역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소송, 행정 절차 등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연락처: (中)piaozaiyong@junzejun.com / (韓)jaeyong.park@dlg.lawyer

>> POINT >>>

중국 합자 법인에서 파트너와 갈등으로 사업 종료가 어려울 때, 지분 10% 이상 주주는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2년 이상 주주총회 미개최 등 경영상의 중대한 곤란이 있고, 주주 이익 침해가 심각하며,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산 판결 후에는 청산 절차를 통해 잔여 재산을 분배 받아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결혼만큼이나 이혼도 중요하다. 보통 한국 회사가 중국에서 중국 파트너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합자 계약 작성 등 업무를 로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 파트너와 사이가 나빠져서 사업을 끝내고 싶은데,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 속앓이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중국 내 합자회사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중국 파트너와 사이가 나빠져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때가 문제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합자 관계를 끝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왜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하는가?

이혼에는 법정 이혼과 합의 이혼이 있다. 결혼한 부부가 원만히 이혼에 합의한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게 된다. 이혼 의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한다.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강제로 이혼할 것을 명하고, 소송상 청구에 따라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판결한다.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중국 파트너와 합작 사업을 하기 위해 지분비율을 정해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국 회사는 자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회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 파트너와 합작을 종료하고 싶을 때, 한국 회사의 지분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문제다. 중국 파트너 주주가 한국 회사 주주의 의사를 존중하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한국 주주의 지분을 적당한 가격에 사들이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국 파트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중방이 한국 주주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한국 주주가 합작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에는 통상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분을 인수할 제 3 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즉, 한국 주주가 합자 관계를 끝내기 위해 지분을 정리하고 싶는데, 당사자간 또는 제 3 자를 통해 지분을 정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때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해산(解散)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법원에 대한 회사 해산 청구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법원에 해산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국 회사법(公司法) 제 231 조¹⁾는 "회사의 경영관리에서 중대한 곤란이 발생하고, 존속을 계속하면 주주의 이익이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의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1) 회사의 경영관리에서 중대한 곤란이 발생, (2) 회사가 존속할 경우 주주의 이익이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됨, (3)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관리에서 중대한 곤란이 발생한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규정(2)(2020 개정)> 제1조²⁾에서는 이 '중대한 곤란'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1) 회사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¹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第二百三十一条 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继续存续会使股东利益受到重大损失，通过其他途径不能解决的，持有公司百分之十以上表决权的股东，可以请求人民法院解散公司。

²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二)(2020修正)》第一条 单独或者合计持有公司全部股东表决权百分之十以上的股东，以下列事由之一提起解散公司诉讼，并符合公司法第一百八十二条规定的，人民法院应予受理：

(一) 公司持续两年以上无法召开股东会或者股东大会，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的；

(二) 股东表决时无法达到法定或者公司章程规定的比例，持续两年以上不能做出有效的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的；

(三) 公司董事长期冲突，且无法通过股东会或者股东大会解决，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的；

(四) 经营管理发生其他严重困难，公司继续存续会使股东利益受到重大损失的情形。

股东以知情权、利润分配请求权等权益受到损害，或者公司亏损、财产不足以偿还全部债务，以及公司被吊销企业法人营业执照未进行清算等为由，提起解散公司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2) 주주의 표결 시 법정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비율에 도달할 수 없어 2년 이상 유효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없는 경우

(3) 회사 이사 간 장기적인 충돌이 존재하고, 이를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경영관리에 중대한 곤란이 발생하여 회사의 존속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위 네가지 조건을 고려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가 '중대한 곤란'의 대표적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주 간 갈등, 배당 분쟁, 채무 부담이나 영업 적자와 같은 일반적 경영상 위험만으로는 당연히 '중대한 곤란' 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정 해산 사유가 인정되면 회사는 청산을 해야 한다. <회사법> 제 232 조 는 "회사가 법정 해산사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청산하여야 하며, 이사가 회사의 청산의무자로서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 일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의 해산 명령 후, 각 주주는 회사의 청산 절차에서 회사의 잔여재산을 법률에 따라 분배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 주주가 중방 주주와의 관계가 나빠져 지분을 정리하고 합자 관계를 끝내고자 하나 주주간 혹은 제 3 자에 대한 지분 양도를 통한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법> 제 231 조가 규정한 '중대한 곤란'등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 하에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고, 해산 판결을 받은 후 청산 절차를 통한 잔여재산 분배를 통해 주주 관계를 해소하고,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회사 해산 청구 사례

1) 해산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경우

한국의 A 씨와 B 회사가 제기한 산둥성에 설립된 C 패션유한회사의 해산 청구에 관한 2019 년 산둥성 고급인민법원 2 심(중심) 판결을 보자.

우선, 이 사건에서 A 씨가 약 15%, B 회사가 약 30%의 C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로서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A 씨와 B 회사(이하 '원고들')는 C 회사가 경영관리에 중대한 곤란이 발생하였고, 이사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아 회사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회사의 적자도 심각하여 계속 존속할 경우 주주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장기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C 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 2/3가 출석하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법원도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사회 개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서신 증거 중에는 A 씨가 주주회에 참석했다고 언급한 부분도 있어, 주주회 개최 사실 또한 인정됐다. 그리고, C 회사가 대출을 받은 상황이 있더라도, 회사가 정상적 경영을 위해 유동자금 수요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것은 곧 경영관리의 중대한 곤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이사회, 주주회가 개최되어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이상, 회사의 부채, 대외보증, 영업적자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리스크에 속할 뿐, 회사 경영관리에 중대한 곤란이 발생했다는 표지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원고들이 1/1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반대의견이 있다면, 스스로 이사회 또는 회의를 소집·주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사법상의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곧바로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 마비되었고 회사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곤란' 및 '존속할 경우 주주의 중대한 손실',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음' 등 회사법 제 231 조에 따른 법정 해산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산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2) 해산 청구가 인용된 경우

물론 해산 청구가 인용된 경우도 있다. 중국 본토인 D 씨가 제기한 내몽골 소재 E 교육자문회사의 해산 청구에 관한 내몽골자치구 고급인민법원 판결(2 심)을 보자.

E 회사의 주주는 2 명으로, D 씨가 65%를, 제 3 자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D 씨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로서 법원에 E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자에 해당한다. 또한, E 회사의

정관에는, '정기 주주회를 매년 2회 개최하며, 주주회 회의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집행이사가 주재하며, 집행이사가 특수한 사유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이사가 기타 인원을 지정하여 주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첫째, E회사의 경영관리에 중대한 곤란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계속 존속할 경우 주주이익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E 회사는 2010년 설립되었고, 2025년 이 사건 항소심이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2021년 이후 약 4년간 주주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유효한 결의를 형성할 수 없었다. 주주들 사이에는 이미 신뢰기초가 상실되었으며, 주주회 메커니즘은 장기간 기능을 상실하였고, 또한 E 회사는 이미 대외적으로 업무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E 회사가 이미 경영관리상의 교착상태를 형성하였고, 경영관리에 중대한 곤란이 존재하며, 결국 주주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둘째, 회사의 경영곤란을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다.

이 사건에서 D 씨가 다른 주주와 소통하고 주주회를 개최하기 위해 연락한 바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기제의 기능상실과 주주 간 대립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다른 주주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됐다.

- 여러 차례 주주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주주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음
- 본 회사의 경영 상황이 심각한 적자 상태에 있어 긴급히 귀사와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본 회사가 3년간 코로나 기간을 거쳐 적자가 심각해졌고, 실질적인 영업 업무가 없어 생산이 중단된 상태임
- 이에 따라 주주회를 열어 향후 경영문제에 관한 결의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본 통지하고, 수령 후 3일 내 회신할 것을 요청함
- 만약 주주회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로인한 일체의 손실 및 불리한 법적 결과는 귀사가 부담함

즉, 위 통지문을 포함한 관련 증거를 통해, 주주회 개최 노력이 있었음에도 주주회가 개최되지 않아, 결국 주주회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된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른 방법'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해산 신청은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 경우 최후의 보루로 실행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와 같이, 회사법에서 규정한 해산 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의 해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4. 대응 방안

한국 기업이 중방과의 합자 관계에서 지분을 정리하고 싶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주주나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심지어 서로 적대적이고, 경영 상황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분 양도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듯,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고,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서 출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회사법에 따른 법정 해산 사유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필요하다.

(1) 이사회 또는 주주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등 회사 경영 관리에 중대한 곤란 발생

(2) 회사가 존속할 경우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3) 이사회/주주회 소집 통지, 회사 회계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권 행사, 지분 양도 노력, 회사의 지분 환매 등 회사법 등 법률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다른 수단을 시도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음

특히 (1)의 사유와 관련하여, 단순한 영업적자의 지속, 주주간 갈등은 '중대한 곤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하자. 이사회, 주주회가 개최될 수 없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해 회사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확인 포인트이다. 그리고 위 (3) 요건을 고려하면, 결국 청구인이 상당 기간동안 그 '다른 방법'의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결론

합작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합자 계약, 주주간 계약, 정관 등에 별도로 교착 상태의 해결에 관한 조항을 정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한 방법으로 경영상 교착상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주주간 불화 등의 이유로 이

미 경영이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 회사법상의 회사의 해산 신청이 가능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법정 해산 사유가 존재하여 법원의 해산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해산 청구 소송이 당사자간 합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산업 트렌드] 로봇이 춤추고 AI가 연출한다... 2026년 춘절, 기술이 빛낸 새로운 명절 풍경

기술이 전통 명절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면서, 2026년 춘절(설)은 예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다. 세계 최초로 로봇이 주도한 대형 공연이 열렸고, 춘완(春晚, 설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인간과 로봇 댄서가 함께 무대를 꾸몄다. 지역 장터 축제에서도 AI 체험이 더해지며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춘절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공개를 넘어,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미래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로 읽힌다.

200여 대 로봇이 이끄는 공연, <로봇 갈라쇼(AGIBOT NIGHT 2026)> 개최

2월 8일, 글로벌 최초 대규모 로봇 공연 <로봇 갈라쇼(机器人奇妙夜, AGIBOT NIGHT 2026)>가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이날 200여 대의 로봇이 공연을 이끌었고, 춤과 콩트, 마술, 무술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만 쓰인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막 무대 <댄스 에너지(舞力全开)>에서는 링시(灵犀) X2 로봇 24대가 정밀한 군집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오차 없는 동작을 선보였다. <무림대회(武林大会)> 순서에서는 로봇 수십대가 소림 무술 콘셉트로 등장해 취권과 봉술 등 전통 무술 동작을 재현했다. 마술 공연 <변신의 순간(超级变变变)>에서는 공연자와 링시 X2, 위안정(远征) A2 로봇의 협연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기술 시연에 머물지 않았다. 사람과의 교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로봇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다. 상황극 코너 <대타 데이트(替身约会)>에서는 로봇이 카이신마화(开心麻花) 배우들과 한 무대에 올라 연기 호흡을 맞췄다. 생체모방 로봇 '징링·쉬안(精灵·璇)'은 자작곡 러브송을 선보였다. <알고리즘 왈츠(算法华尔兹)>에서는 징링(精灵) G2가 인간 무용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무대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로봇에 대한 '차갑다'는 이미지를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공연에는 세심한 배려가 더해졌다. 수어 통역 로봇이 배치돼 청각장애 관객도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징링 G2 '샤오차이치(小彩旗)'는 12년 전 춘절 특별 무대의 상징이었던 회전 동작을 다시 선보였다. <메가 펫 파티쇼(萌宠机甲派对秀)>에서는 네 발 로봇이 판다와 조랑말 모습으로 등장해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며 사람과 로봇이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공연 막바지에는 <노동의 힘(咱们工人有力量)>이 울려 퍼지며 '스마트 제조'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피날레 코너 <새로운 여정(骏启新程)>에서는 기계 장비와 알고리즘을 결합한 상징적 연출을 통해 중국 로봇 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업계에서는 <로봇 갈라쇼(AGIBOT NIGHT 2026)>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로봇 기술을 산업 고도화의 동력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체화 로봇, 다시 춘완 무대에 오르다

<로봇 갈라쇼(AGIBOT NIGHT 2026)>가 미래를 향한 실험적 무대였다면, CCTV에서 방영된 춘완(春晚)은 기술을 대중의 정서과 기억 속에 녹여내는 상징적인 무대라 할 수 있다.

2 월 4 일 열린 춘완 발표회에서 체화 로봇의 재등장이 예고됐다. CCTV 측은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이어가며, 전 세계 화교 및 중화권 시청자들에게 미래적 연출이 한층 강조된 춘완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CCTV 미디어 대형모델 2.0'이 처음으로 춘완 제작에 활용돼, 프로그램 제작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 CCTV 의 '징차이(菁彩)' 시청각 기술 표준도 전면 도입돼, 춘완은 전 플랫폼을 아우르는 초고화질 통합 방송으로 구현된다.



세로형 버전에는 NVI 초고화질 제작·송출 기술이 처음 적용됐다. 3 차원 징차이(菁彩) 음향 기술도 전 과정에 도입돼 현장 음향을 보다 사실적으로 구현한다. 장애인 시청 지원 버전 역시 처음으로 CCTV 음악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수어 통역과 AI 생성 자막을 통해 장애인 시청자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춘완에서는 AIGC 기반의 실감형 무대효과 기술도 처음 도입돼, 무대와 관객이 상호작용하는 연출을 선보인다. 14 개 수치제어 모듈로 구성된 '질주하는 말(奔马)' 무대 장치는 연출 공간에 수많은 말이 내달리는 장면을 구현한다. 전통 문화를 AI 기술로 재해석한 무대에서는 AI 생성 영상과 실감형 확장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구현한다.



2026 하이덴(海淀) 신춘 과학기술 장터 축제 개막

기술이 더해진 춘절제 분위기는 방송 화면을 넘어 북적이는 도심 거리로까지 이어졌다. 제 2 회 하이덴(海淀) 신춘 과학기술 장터 축제가 2월 19일~23일까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질주하는 혁신, AI와 함께하는 하이덴 춘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메인 행사장은 베이징 우커송(五棵松) 완다광장(万达广场)에 마련됐다. 하이덴 다웨이청(大悦城)과 중관춘(中关村) 다룽청(大融城) 등에도 보조 행사장이 마련됐다.



이번 장터축제는 '기술로 확장하고 문화로 스며들다'라는 슬로건을 핵심 방향으로, '춘절 문화, 과학 기술 전시, 미래 생활'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5 개의 특색 전시구를 선보였다. 현장에는 중국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선보였다. 세계 로봇 스포츠대회 수상 로봇은 무형문화유산인 영가무(英歌舞)를 재현하고, 태극권과 태권도, 네 손 연주 등 다양한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이번 장터 축제에서는 AI 체험형 어린이 과학 공간도 마련됐다. 대형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돌봄 로봇과 캐릭터 인형을 중심으로, 뇌파 제어 레이싱, 3D 프린팅, 로봇 특기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기술을 놀이형 콘텐츠로 풀어냈다.



또한 하이톈구에서는 2월 27일~3월 3일까지 원소절 과학기술 장터 축제가 열린다. 메인 행사장은 중관춘 원취안(温泉) 과학기술원 싱취안후이(兴泉汇) CGLive 상업지구에 마련된다. 현장에서는 토끼인형(兔爷) 로봇과 재물신 로봇, 스마트 인형, 로봇 개, 무인선박, 드론 등 다양한 기술 성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로봇 공연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춘완 무대, 춘절 장터 축제와 산업단지의 기술 발표 현장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더 이상 멀고 차가운 개념이 아니다. AI 로봇이 춘절 무대에 오르면서, 우리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전통 문화가 기술과 만나 새롭게 해석되고, 한층 자신감 있게 세계로 확장되는 흐름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참고자료

- ◆ 국제창의지속가능발전센터(国际创意与可持续发展中心). 인간과 로봇의 합동 무대와 AI 가 건네는 새해인사, 춘절 무대와 지역 축제 모두 로봇이 주인공
<https://city.cri.cn/20260210/a791db27-730d-4692-8637-1569e30e42d9.html>

[산업 트렌드] 2025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백서: 두뇌와 신체의 융합, 피지컬 AI 혁명의 시작

피지컬 AI의 부상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혁명

인공지능의 '디지털 두뇌'와 정밀 제조 기술이 구현한 '물리적 신체'가 결합하면서, 산업 구조를 바꿀 수준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피지컬 AI는 새로운 산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연구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의 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 사회의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人形机器人创新发展指导意见)>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2027년에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본 백서는 산업 현황과 구조적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후방 기업과 투자기관, 지방정부에 전략적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피지컬 AI 개념 정립: 이론적 기반과 산업의 출발점

중국 컴퓨터 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물리적 신체를 기반으로 감각하고 행동하는 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능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감지-판단-행동'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Kimi 핵심 요소

표. 핵심 요소

요소	작용
본체	물리적 구현체(로봇의 기계 구조 등)
지능체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두뇌', AI 대형모델을 기반으로 멀티모달 데이터를 처리함
데이터	멀티모달 상호작용 데이터가 역량 일반화의 핵심 요소
학습 진화 구조	강화학습 등 기술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 발전 단계

표. 발전 단계

기간	발전 현황
1950-1990 년	개념 형성 단계, 기호주의·행동주의 인공지능 등장
1990-2010 년	학제 간 융합 확산, 생체모방 로봇 출현
2010-2020 년	딥러닝 발전, 로봇의 환경 인식·자율 능력 향상
2020-현재	대형모델 융합, 휴머노이드 로봇 열풍(테슬라 Optimus 등)

■ 분류

피지컬 AI 는 구현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중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 중심 환경에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 인공지능(AGI)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분석: 산업 생태계와 가치사슬

■ 시장 개요와 규모

- 새로운 국면의 도래

2022년 테슬라가 옵티머스(Optimus)를 공개하며 상용화의 출발점을 열었다. 2025년에는 유니트리(UNITREE, 宇树科技) 로봇이 중국 춘완(春晚) 무대에 등장했고,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AI와 로봇의 융합 시대가 본격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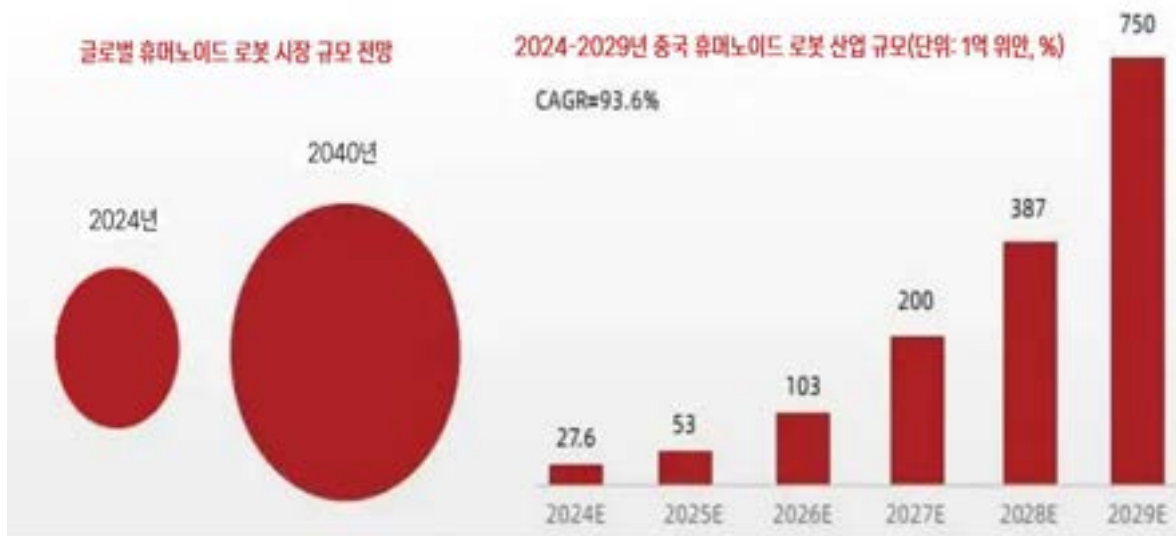
- 단계 구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능화 수준에 따라 L0(비지능)~L4(초지능) 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산업의 주류는 L1~L3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L4 수준으로의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 시장 규모

일론머스크는 글로벌 잠재 수요가 10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시장 잠재 가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중국의 경우 2024년 시장 규모가 27억 6천만 위안에 달했다. 2029년에는 75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복합성장률은 93.6%로 전망된다.



■ 산업 구도와 경쟁 양상

- '5 개 진영' 경쟁 구도

표. '5 개 진영' 경쟁 구도

구분	대표 기업 및 특징
전문 로봇 기업	유비텍(UBTECH),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진입장벽 구축
스타트업	유니트리(Unitree), 애지봇(AGIBOT) 등, 기술 혁신으로 빠르게 시장 진입
AI-인터넷 기업	바이두, 알리바바 등, 알고리즘 역량을 기반으로 생태계 확장
신에너지차 기업	테슬라, 샤오미 등, 기존 자동차 공급망을 활용해 비용·양산 경쟁력 확보
기존 로봇 기업	엘리펀트 로봇(Elephant Robotics), 산업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분야로 전환

- '3 대 진영' 경쟁·협력 구도

표. '3 대 진영' 경쟁·협력 구도

구분	특징
기술 축적형	하드웨어 연구개발에 집중, 통합 구조에서 강점 보유
혁신 주도형	자본과 알고리즘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질서 재편 시도
현장 확산형	기존 공급망을 활용해 특정 산업 영역부터 진입

■ 산업체인과 핵심 부품

-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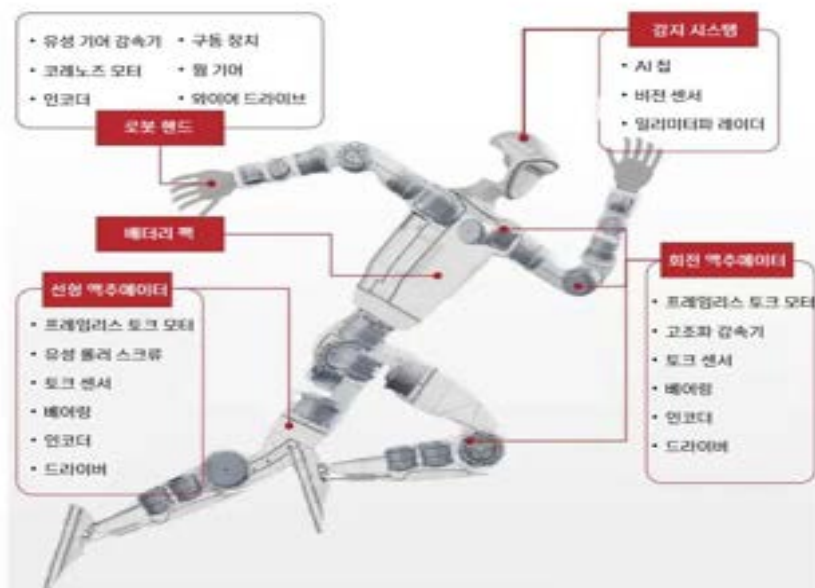


표. 산업 구조

구분	특징
업스트림	핵심 부품(모터, 감속기, 센서, 리드 스크류등)
미들스트림	본체 제조와 시스템 통합
다운스트림	산업 제조, 기업·공공 서비스, 가정 서비스, 위험·특수 환경 작업 등 4 개 분야의 응용 영역

- 기술 구성

'두뇌'(AI 기반 의사결정), '소뇌'(운동 제어), '신체'(구동·실행 장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핵심 부품 시장과 과제

표. 핵심 부품 시장과 과제

핵심부품	현황
힘·토크 센서	- 6 축 힘 센서가 핵심, 중국 국내 기업 점유율 확대 중 - 위리아치(宇立仪器) 등 기업
유연 촉각 센서(전자피부)	- 압저항 방식이 주류, 원가에서 소재 비중 20~30% - 한웨이(汉威), 파시니(帕西尼) 등 기술고도화 진행
IMU 관성 센서	- 전략급부터 소비자급까지 4 단계, MEMS 기술이 주류 - 신동렌커(芯动联科) 등 중국 기업의 중저가 시장 진입
다관절 로봇핸드	- 원가 비중 20~30%, 2030년 시장 규모 320.6억 위안 전망 - 기술 표준 미정립, 창나오테크(强脑科技), 테슬라 등 참여
정밀 감속기	- 하모닉(경부하), RV(중·고부하), 유성 감속기 3종 - 중국 국산화율 50% 이상이나, 수명·정밀도 개선 과제 - 2030년 시장 규모 96억 위안 전망
서보 모터	- 무프레임 토크 모터(관절), 코어리스 모터(로봇핸드), 원가 비중 18~20% - 해외기업이 시장 주도, 부커주식(步科股份), 밉즈덴치(鸣志电器) 등 중국 기업 추격

<p>볼스크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 롤러 볼스크루가 주류, 중국 국산화율 낮음(고가 시장 외자 점유율 약 90%) - 헝리에야(恒立液压), 신젠찬동(新剑传动) 대체 공급망 구축 추진
-------------	---

■ 적용 분야와 확산 단계

- 우선 적용

산업 제조(자동차 공장 실증). 환경이 표준화되어 있고, 기술 재사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 단계적 확대

기업·공공 서비스(안내, 의료), 가정 서비스(돌봄, 가사 지원)

- 장기 목표

재난 구조, 우주 등 특수 환경 작업 투입. 기술 적합성과 안정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 사례

유비텍(UBTECH) Walker S1 의 자동차 기업 생산라인 투입, 앤트금융그룹(蚂蚁集团) R1 로봇의 안내 및 의료 분야 시범 운영

정책 및 지역별 전략: 국가 전략과 지방 실행

■ 국가 정책 방향

- 10년의 흐름

2015 년 초기 단계 연구를 시작으로, 2023 년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人形机器人创新发展指导意见)>이 발표됐다. 이 문건은 '3 단계 발전 구상'을 제시했으며, 2025 년까지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2027 년에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목표다.

- 2025년 위상 변화

2025 년 피지컬 AI 는 정부 업무보고에 처음 포함되며,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의 대표 분야로 공식 언급되었다.

■ 지방 정책의 연계

- 지역별 대응

저장(浙江), 후베이(湖北),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등은 특별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응용 분야 개방, 산업체인 협력 강화, 기술 혁신, 인재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지역별 특색

표. 지역별 특색

지역	특색
징진지(京津冀)	베이징을 중심으로 기술 원천 확보와 표준 제정에 집중
장삼각(长三角)	상하이가 산업사슬 협력의 전반을 이끌고, 쑤저우(苏州)는 핵심 부품 제조에 주력
주삼각(珠三角)	선전(深圳)이 공급망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구조
중서부(中西部)	청두(成都), 우한(武汉) 등은 차별화 전략을 통해, 민생 분야와 특수 환경 중심으로 확장

■ 지역별 발전 구도

- 산업 분포

장삼각주(长三角) 지역이 전체 기업의 40.06%를 차지하고, 웨강아오(粤港澳) 지역이 28.02%, 징진지(京津冀) 지역이 17.67%를 차지하면서, 동부 지역이 이끌고 중서부 지역이 뒤따르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 주요 도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은 1군으로, 산업사슬이 비교적 완비돼 있다.

쑤저우(苏州), 항저우(杭州)는 2군으로, 제조 기반과 혁신 기능을 함께 담당한다.

충칭(重庆), 청두(成都) 등은 3군으로, 응용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술 체계와 주요 기업 사례

■ 핵심 기술 축

감지 시스템(시각·촉각), 제어 시스템(운동 계획), 의사결정 시스템(AI 대형모델)로 구성된다. 세 영역이 함께 고도화되며 기술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 기업 사례

표. 기업 사례

기업	특색
테슬라 Optimus	자동차 기술 플랫폼 재활용, 다관절 로봇핸드 22 자유도 구현
유비텍(UBTECH) Walker 시리즈	글로벌 특허 보유 선도, 다양한 산업 현장 실증 수행
유니트리(UNITREE)H1	초경량 설계, 최대 토크 360N·m 달성

참고자료

- ◆ 소후망(搜狐网).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백서: 몸을 갖춘 AI,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다
https://news.sohu.com/a/972822917_121709768

[산업 트렌드] 출하량의 90% 차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속화 배경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약 1만 3000 대로, 중국이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출하량 기준 상위 6개 기업도 모두 중국 기업이었다. 옴디아는 이에 대해 "중국 공급사들이 양산 역량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흥 산업이 연구 단계를 넘어 대규모 양산에 이르고,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십만 달러에서 10만 위안 이하로, 낮아진 가격 장벽

휴머노이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Atlas)'나 피겨AI의 제품은 예상 가격이 대부분 10만 달러를 넘어, 일반 가정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큰 수준이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가격을 10만 위안 이하로 낮췄다. 애지봇(AGIBOT)의 '링시 X2 청춘판'은 9만 8000 위안에 출시됐고, 유니트리(UNITREE)의

'Unitree G1'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8 만 4800 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 문턱이 낮아지면서 개인이 로봇을 소유하는 일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게 됐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격 역시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대기'에서 '당일 공급' 시대로, 확대된 공급망 경쟁력

중국의 강력한 제조업 공급망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과거 디지털 제품의 유통 중심지였던 선전 화창베이(华强北)는 고밀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다. 핵심 부품 공급과 엔지니어링 지원 체계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예전에는 해외에서 서보모터를 주문하면 배송까지 세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화창베이에서 주문하면 오전에 주문한 부품을 당일 오후에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하모닉 감속기, 서보 구동 시스템 등 핵심 기술에서 해외 독점 구조를 깨며 비용을 크게 낮추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차 산업에서 구축된 높은 수준의 공급망은 로봇 분야에도 배터리·모터·전력제어 기술, 자율주행, 라이다 등 다양한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비용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기술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한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 비용은 해외 대비 약 3분의 1 수준, 경우에 따라 그보다 더 낮은 것으로 추산된다.

공장에서 요양시설까지, 사회 전체로 적용 분야 확대

중국 로봇 산업의 또 다른 강점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다양한 활용 환경이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여러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시험 운영되며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는 노인과 탁구를 치거나 휠체어를 밀어주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공공 공간에서는 커피머신이나 아이스크림 기기를 조작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로봇은 이처럼 빠르게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정책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오픈소스 커뮤니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이시는 관련 데이터셋 표준을 발표했다. 베이징은 정부 투자 펀드를 조성했고, 선전은 로봇 활용 가능 분야 리스트를 공개했다. 기업 측면에서도 참여 주체가 다양하다. 유니트리(宇树)와 애지봇(智元) 같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너(荣耀) 등 대기업들도 새롭게 시장에 뛰어 들었다. 여기에 수만 개 중소기업이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산업 발전 전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격차와 과제,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는 존재한다. 현재 중국의 경쟁우위는 공학적 구현과 산업 적용에 집중돼 있으며, 기초 분야인 비전·언어 대형 모델이나 월드 모델 등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선도 수준과 격차가 있다는 평가다. 개발 툴 체계와 개발자 생태계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국제 표준 제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생산 규모에 비해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야만 산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0'에서 '1'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를 지나 '1'에서 '100'으로 확장되는 빠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강점을 바탕으로 역량을 축적한다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른 성장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도 확보하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 인민일보(人民日报). 출하량의 90% 차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속화 배경
<https://baijiahao.baidu.com/s?id=1858611599400056173>

[산업 트렌드] 집단 지능으로 여는 새 시대, '가치 중심 글로벌 진출'에 나선 중국 기업들

2026년 3월 2일~5일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이는 개최 20주년을 맞는 이정표적 행사이며, 'The IQ Era(지능의 시대)'를 주제로 AI와 통신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낼 미래를 조망한다.



20년의 변화, 통신 업계 행사에서 글로벌 기술 플랫폼으로

20년 전 MWC가 칸에서 바르셀로나로 개최지를 옮겼을 당시만 해도 약 5만 5000명이 참여하는 통신 업계 중심의 행사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재는 관람객 10만 명 이상, 전 세계 2,9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기술 전시회로 성장했다. 비벡 바드리나트 GSMA 사무총장은 "2026년 MWC가 AI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한(斯寒) GSMA 중화권 대표는 "AI와 네트워크 연결 기술의 결합이 인간의 통찰을 바탕으로 기술 진화를 이끌고, 지능형 기술을 통해 새로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나아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동시에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 MWC 20년의 변화

2006년	2026년
참가자 5만~6만 명 주요 통신 사업자 3G 및 4G 관련 논의 통신 산업 컨퍼런스	참가자 10만 명 이상 60%가 특정 산업 분야 출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위성 및 컴퓨팅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생태계

6개 이니셔티브·6개 전시존, 'The IQ Era'의 청사진 제시

이번 MWC 는 스마트 인프라(5G-A 와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지능형 연결 생태계(통신과 AI 의 결합), 기업의 AI 전환(산업별 대형모델과 AI 활용), AI 허브(생성형 AI 와 거버넌스), 기술의 보편적 혜택(디지털 접근성), 게임 체인저(위성통신 등 파괴적 혁신)의 여섯 가지 핵심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스페이스 X 대표의 참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궤도 위성의 상용화 관련 최신 동향도 공유될 전망이다.

전시존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미래 공항' 전시존에서는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실물 규모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공개되며, '뉴 프런티어' 전시존에는 양자 기술과 위성통신, 피지컬 AI 등 분야의 글로벌 혁신 기업 약 20 곳이 참여한다. 스타트업 전시존인 '4YFN'에서는 '무한한 AI'를 주제로 신생 기업들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통신 산업의 미래 판도를 바꿀 3대 기술 변화

이번 MWC 에서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성통신은 상용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GSMA 는 관련 주제로 고위급 토론 세션을 마련했으며, 저가 단말기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신 솔루션이 공개될 예정이다. AI 단말기 시장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주요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강화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이며, '온디바이스 AI' 기술도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아너(HONOR, 荣耀)는 세계 최초의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로봇 '아너 ROBOT PHONE'을 공개해, AI와 체화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5G-A 와 6G 기술 역시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330 개 이상의 도시에서 5G-A 네트워크가 구축됐으며, 퀄컴 등 기업들은 6G 와 AI 의 결합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는 2030 년 6G 상용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규모 중심 해외 진출'에서 '가치 중심 글로벌 전략'으로

이번 행사에서 중국 기업들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기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MWC 에는 중국 기업 약 350 곳이 참가해, 국가별 참가 기업 수 기준으로 3 위를 기록했다. 5G-A 의 대규모 상용화와 AI 에이전트 기술 확산 등 흐름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규모 중심의 해외 진출'에서 '가치 중심 글로벌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글로벌 시장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3대 통신사도 이번 행사에 모두 참여해 스마트화 전환의 새로운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표. 중국의 3대 통신사 참여 현황

구분	상황
차이나텔레콤	'클라우드·AI 기반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스마트 클라우드, 양자 기술, 저공 경제, 위성 네트워크 전략 소개
차이나모바일	글로벌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AI+' 산업별 지능형 솔루션 소개
차이나유니콤	연결, 컴퓨팅, 서비스, 보안 중심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 공개

인프라 및 솔루션 기업들 역시 대대적인 기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표. 인프라 및 솔루션 기업 참여 현황

구분	상황
화웨이(华为)	가치 중심의 AI 에이전트 기반 네트워크와 개방 혁신형 AI 인프라 전략 소개
중싱통신(ZTE)	AI 기반 네트워크 연결 기술과 지능형 컴퓨팅 인프라, 차세대 단말기 공개
중국신커(中国信科)	우주·항공·지상·해양 통합 네트워크 기반의 광통신 및 해양 통신 기술 공개
창페이광섬유(长飞光纤)	공심 반공진 광섬유, 초저손실 멀티 코어 광섬유 등 차세대 제품 공개
형통(亨通)	해저 통신과 광통신 등 다양한 솔루션 소개
아신테크(亚信科技)	디지털·지능형 기술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제품 공개
장보롱(江波龙)	AI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체화지능 로봇을 위한 맞춤형 메모리 솔루션 공개
하오징테크(浩鲸科技)	AI Native와 Cloud Native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과 주권형 AI 인프라 소개
알리바바클라우드(阿里云)	최신 AI 기술과 혁신 성과 최초 공개

단말기 제조사들도 존재감을 키우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표. 단말기 제조사 참여 현황

구분	상황
아너(荣耀)	폴더블 플래그십 모델 'Magic V6'와 글로벌 최초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로봇 '아너 ROBOT PHONE' 공개
샤오미(小米)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샤오미 17 시리즈 발표를 통해 유럽 프리미엄 시장 공략 가속화, '사람 x차x집' 생태계 전략도 함께 강조
비보(vivo)	'X300 Ultra'의 글로벌 시장 출시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
ZTE 누비아(中兴努比亚)	바이트댄스와의 협업을 통해 차세대 AI 스마트폰 '더우바오(豆包)' 출시

MWC는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 과정을 함께해 왔다. 2026년 행사에 참가한 중국 기업 350 곳은 단순한 제품과 솔루션 소개를 넘어,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모이는 이번 행사에서 중국 기업들은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The IQ Era'가 그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 ◆ 중귀공신신원망(中国工信新闻网). MWC 2026 | 집단 지능으로 여는 새 시대, '가치 중심 글로벌 진출'에 나선 중국 기업들
https://www.cnii.com.cn/gxxww/rmydb/202603/t20260301_722509.html

[산업 트렌드] 2026년 중국 양회: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시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육성·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며 주목을 받았다. 전통 산업의 고도화와 신흥·미래 산업 육성, 지능형 경제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양회 기간 동안 대표와 위원, 산업계 인사들은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기반 강화: 전통 산업의 '새로운 전환'

전통 산업은 실물 경제의 기반이다. 정부는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투입하고, '클라우드 도입, 데이터 활용, 지능화 지원' 등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해 전통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인대 대표인 펑서우(彭寿) 원사는 산업 전반에 '클라우드 도입, 데이터 활용, 지능화 지원'을 추진하고, 전 공정 디지털화와 스마트 제조를 결합해 산업 기반 고도화와 산업체인 현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8개 부처는 최근 <'AI+제조' 특별 행동 실행 의견('人工智能+制造'专项行动实施意见)>을 발표해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 확대에 나섰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기초형 스마트공장 3만 5,000여 곳, 고도화형 8,200여 곳, 우수형 500여 곳이 구축됐으며, 이 가운데 15개 공장이 '선도형 스마트공장'으로 육성됐다.

'제조'에서 '지능형 제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의 혁신은 핵심 기술 개발과 디지털·지능화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여기서 디지털·지능화 전환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 제조를 확대하고 새로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저우원제(周云杰) 하이얼그룹(海尔集团) 대표는 임바디드 인텔리전스의 기술 발전을 빠르게 추진해 산업의 지능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섭콘(SUPCON, 中控)의 창업자 추젠(褚健) 대표는 핵심 산업용 AI 제품이 이미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를 통해 안전 강화, 품질 개선, 비용 절감, 효율 향상,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장 동력 확대: 새로운 산업 분야 개척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은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을 이끄는 핵심 성장 축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의 육성·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 경제, 미래 에너지, 양자 기술, 체화지능, 뇌-기계 인터페이스, 6G 등 분야를 중점 육성 대상으로 제시했다.



올해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는 '미래 에너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전인대 대표인 천진(陈军) 원사는 미래 에너지에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수소에너지, 핵융합 등이 포함되며, 재생 가능하고 청정하며 고효율, 대규모, 저비용을 특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임바디드 AI 로봇은 이제 '시연 단계'를 넘어 실제 활용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서빙로봇 기업 키논(KEENON, 擎朗)은 현재까지 10만 대 이상의 로봇을 도입했으며, 사업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됐다. 창업자인 리통(李通) 대표는 로봇을 실제 업무에 투입하는 '로봇 직무화'를 통해 로봇의 산업 현장의 대규모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활용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텐진대학교(天津大学) 밍둥(明东) 부총장은 정책 지원과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뇌-기계 인터페이스가 향후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드론 배송, 항공 관광,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저고도 경제는 3년 연속 정부 업무보고에 언급되었으며, 현재는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중국 민항국은 2035년 중국 저고도 경제 시장 규모가 3조 5천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며,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사이디(赛迪) 연구원은 공역 관리의 정교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핵심 기술 발전과 응용 확대가 맞물리면서, 저고도 경제 산업의 현대화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저고도 경제는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발전 지원: 서비스 체계의 혁신

현대 서비스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꼽힌다. 올해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서비스업의 규모 확대와 질적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 디지털-실물 융합 50인 포럼의 홍용(洪勇) 박사는 최근 많은 제조 기업들이 '제조+서비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설계, 맞춤형 생산, 운영 관리, 공급망 최적화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첨단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융합'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 서비스뿐 아니라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58다오자(58到家)'에 따르면 춘절 이후 가사 서비스 주문량은 1월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36% 늘었다. 전인대 대표이자 58통청(58同城) CEO인 야오진보(姚劲波) 회장은 가사 서비스 산업을 '보조적 수요'에서 '기초적인 민생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58통청은 육아,

산모·영유아 관리, 가사 관리, 노인 돌봄 등 네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 가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에는 처음으로 '중국 서비스' 브랜드 육성 방안이 포함됐다. 상무부 연구기관 소속 리 쥘(李俊) 연구원은 중국 서비스업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데 반해 브랜드 경쟁력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업 표준 체계를 구축한다면 '중국 서비스'가 효율성과 품질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로운 성장 엔진 구축: 지능형 경제 혁신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는 처음으로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 구축'과 '지능형 기술 기반 신산업·신모델 육성'이 제시됐다. 국무원 연구실의 천창성(陈昌盛) 부주임은 "이는 인공지능의 기회를 활용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신스치(新石器, NEOLIX)의 창업자 위언위안(余恩源) 대표는 "무인 차량은 'AI+' 기술이 도시 서비스에 적용된 대표적인 지능형 단말기로, 물류 배송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5년 중국 AI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2천억 위안을 넘어섰고, 관련 기업도 6,2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우홍이(周鸿祎) 360 그룹 회장은 'AI+'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6대 역량 모델(전력, 연산, 지능, 인력, 보안, 생산)'을 제안했다.

차오핑(曹鹏) 징둥그룹 부사장은 "AI 산업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모 중심 성장에서 효율 중심 발전으로, 응용 분야 선도에서 산업 생태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텐예(田野) 중국 공업인터넷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산업인터넷과 AI 의 융합을 확대하고 업종별 AI 활용 시나리오 체계를 정리하며 산업용 데이터셋과 특화된 지능형 에이전트를 개발해, 제조업이 혁신적이고 고도화된, 지능화·친환경 중심의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전통 산업의 디지털·지능화 전환과 신흥·미래 산업의 선제적 육성, 서비스업 융합 확대, 지능형 경제 발전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며 신질생산력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신화망(新华网).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시
<https://mp.weixin.qq.com/s/MkqN9Jiksb2TO4c1BpSlw>

[산업 트렌드] 중국 경제의 새 엔진 '신질생산력', 미래 산업에 올인하는 이유는?

2026년 전국 양회에서 '미래 산업'은 가장 주목받는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 업무보고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리스크 분담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으며, 미래 에너지, 양자 기술, 체화지능, 뇌-기계 인터페이스, 6G 등 첨단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1월 30일 열린 중앙정치국 집단 학습에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며, 단계적으로 산업 기반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앙차원의 정책 설계에서 지방 정부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미래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려는 정책 기조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미래 산업은 신질 생산력의 중요한 기반

미래 산업이란 대규모 변화를 이끌 혁신 기술과 그에 기반한 신제품·신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산업을 의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뇌 기반 인공지능, 양자 정보, 유전자 기술, 미래 네트워크, 심해·우주 개발, 수소 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높은 성장 잠재력과 산업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향후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으며 구조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형 언어모델에서 체화지능, 저공 경제에 이르기까지 미래 산업 육성은 장기적인 경쟁 우위 확보의 핵심 기반이자 기존 산업 패러다임의 재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생산 요소 중심의 성장 방식은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바이오 제조나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면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생산력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래 산업은 리스크가 크고 투자 기간이 길지만 수익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포용적인 제도 환경과 리스크 분담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첨단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응용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중앙 정책과 지역 실행의 동시 추진

제 15 차 5 개년 계획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앙 차원의 정책 방향과 각 지역의 정책 실행이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각 지방 정부는 미래 산업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세부 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추진을 확대하며 중앙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여러 지역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미래 산업 기반 강화, 핵심 기술 개발 추진, 대표적 응용 사례 발굴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상하이로 예로 들면,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전통 산업의 디지털화와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3대 선도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6대 신흥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6대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들어 산업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즈위안이노베이션(智元创新)의 위안정(远征) 로봇은 물건 전달과 안내 등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징링(精灵) G2 는 산업용 로봇의 정밀한 그립 동작을 구현하고 있으며, 링시(灵犀) 로봇은 방문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다양한 멀티모달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모델·이노베이션 센터(模速空间)' 3 기 단지에는 홍숭 AI (红熊 AI), 룽멍테크(融梦科技) 등 여러 AI 기업이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상하이 미래 산업의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은 상하이는 대형 모델, 연산 인프라, 데이터 자원, 산업 응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상하이는 인공지능을 특정 기술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반 기술로 바라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뒷받침할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략적 접근이란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산업 분야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과 산업 협력 강화

미래 산업은 파급력, 전략성, 혁신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인 만큼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종합적인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 전략 수요와 기술 성숙도, 자원과 인프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산업이 신형 산업 및 전통 산업과도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 산업 육성이 무분별한 추진이나 경쟁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지역 여건에 맞춰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상하이인 인공지능 산업 거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를 집적회로, 바이오 의약 등 기존 선도 산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역량은 전략적 접근에서 중요한 요소다.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는 첨단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과 함께 인재를 키우고 혁신 생태계를 꾸준히 다져 가는 일도 필요하다. 실제로 혁신 기술을 먼저 확보한 국가와 기업이 글로벌 산업 구조에서 가치사슬의 핵심 위치를 차지해 온 사례는 적지 않다.

앞으로 미래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인간의 생활 방식과 생산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AI+' 전략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차세대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 역시 질적 변화에서 양적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성장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다면, 미래 산업이 열어 갈 새로운 시장 속에서 보다 뚜렷한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 진르터우타오(今日头条). 전략적 관점에서 본 미래 산업 육성
https://www.toutiao.com/article/7613964295600079411/?&source=m_redirect

[산업 트렌드] 휴머노이드 로봇 '테니스 선수' 등장, 사전 프로그래밍 없이 장거리 랠리 구현

모든 스포츠 가운데서도 테니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어려운 종목으로 꼽힌다. 빠르게 날아오는 공에 즉각 반응해야 하고, 안정적인 리턴을 위해서는 전신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넓은 코트를 오가는 이동 능력도 필요해, 순간적인 폭발력과 정교한 제어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이제 로봇은 사람처럼 판단하고 움직이며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위치를 빠르게 잡고 상·하체를 자연스럽게 연동해 스윙을 이어가며, 공을 정확히 받아 치는 것은 물론, 랠리 과정에서 상대의 속도와 흐름에 맞춰 동작을 조정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능력이 사전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심층 강화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된 결과라는 점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전개되는 테니스 랠리를 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로봇이 단순한 동작 재현을 넘어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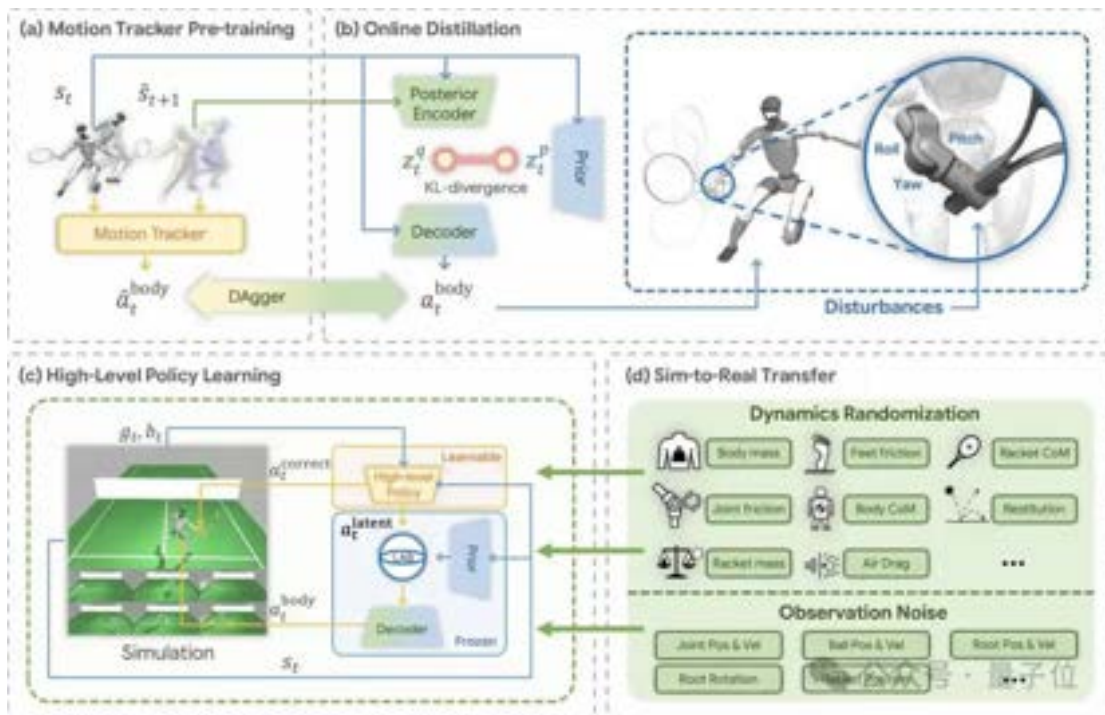


이번 성과는 갈봇(GALBOT,银河通用)과 칭화대학교(清华大学)의 공동 연구에서 비롯됐다. LATENT(Learning Athletic Humanoid Tennis Skills from Imperfect Human Motion Data)로 명명된 이 연구는 불완전한 인간 동작 데이터를 활용해 로봇이 복잡한 운동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실제 환경에서 빠르고 민첩하게 이어지는 테니스 랠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신을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운동 소뇌' 개념 제시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은 원격조작이나 모션 캡처 데이터를 활용해 사람의 동작을 따라 배우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테니스처럼 움직임이 빠르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 전체를 기록하려면 넓은 범위를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모션 캡처 시스템이 필요하고, 공을 칠 때의 손 동작까지 정확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매우 크고 실제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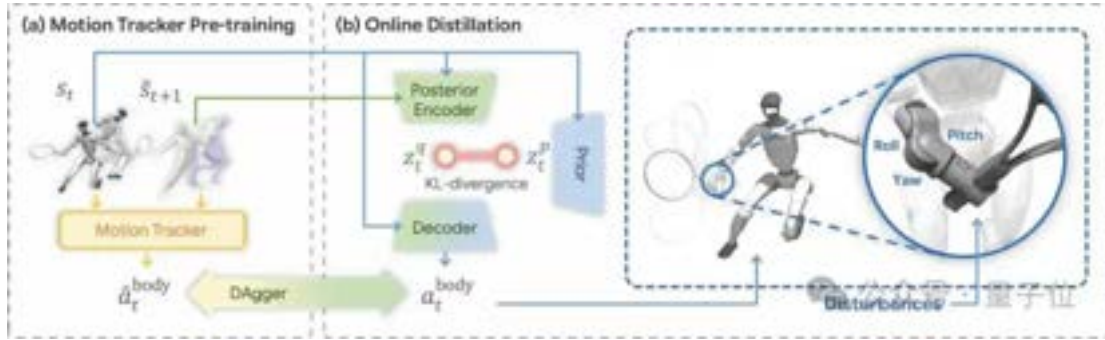
LATENT 는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전신 동작이나 정밀한 손 동작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이동, 스윙, 스텝과 같은 단편적인 동작만으로도 로봇이 스스로 운동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동 소뇌'를 구축함으로써 넓은 범위를 빠르게 이동하거나 급정지하고 다양한 공에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고품질 전문가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수집이 쉬운 불완전한 인간 동작 데이터로 대체함으로써 로봇 운동의 학습의 데이터 기반을 크게 넓혔다.



'운동 기술 공간' 개념을 도입해, 동작의 자연스러움과 제어 가능성을 확보

단편적인 동작 학습만으로는 복잡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어렵다. 관건은 이러한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잠재 공간에 '운동 기술 공간'을 구성해, 흩어져 있던 인간 동작 데이터를 조합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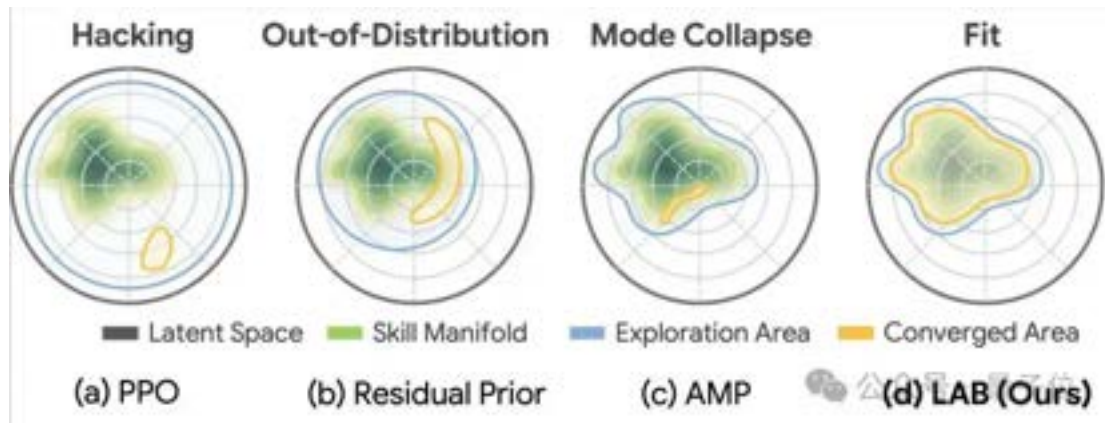
또한 학습 과정에서 주요 관절에 무작위 변화를 주어, 동작을 수정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로봇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스윙 동작의 세부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게 됐고, 기존 데이터 수준을 넘어서는 운동 기술 학습도 가능해졌다.



학습 과정에서 강화학습 기반의 플래너가 기술 공간에서 다양한 동작을 조합해 최적의 움직임을 만든다. 로봇은 공의 속도와 떨어지는 위치, 그리고 자세의 상태를 바탕으로 걸음과 스윙 타이밍, 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조정한다. 자연스러운 동작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공을 받아 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황에 맞춰 동작을 세밀하게 조정하며 특히 공을 받아 치는 순간 스윙 궤적을 조정함으로써 공의 방향과 낙하지점을 제어한다. 그 결과 보다 안정적이고 정밀한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잠재 공간 동작 제약'을 통해,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스윙을 구현

테니스처럼 빠른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을 받아 치는 것뿐 아니라, 동작의 자연스러움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화학습에만 의존할 경우 로봇은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몸을 불필요하게 흔들거나 어색한 자세로 공을 겨우 받아 치는 식이다. 공은 넘길 수 있지만, 동작의 완성도는 크게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잠재 공간 동작 제약(Latent Action Barrier, LAB)'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강화학습이 일정한 제약 속에서도 유연하게 동작을 탐색하도록 설계됐다. 로봇은 들어오는 동에 맞춰 이동과 스윙을 스스로 조정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다.

실험 검증

LATENT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해당 정책을 29 자유도의 유니트리 G1 로봇에 적용해 시뮬레이션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PPO, AMP 등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한 결과, 공을 받아 치는 성공률과 리턴 정확도, 관절 움직임의 부드러움, 관절 토크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정확도뿐 아니라 움직임 역시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ethod	Forehand				Backhand				Forecourt				Backcourt			
	SR↑	DE↓	Swish↓	Torque↓	SR↑	DE↓	Swish↓	Torque↓	SR↑	DE↓	Swish↓	Torque↓	SR↑	DE↓	Swish↓	Torque↓
PPO [20]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MotionVAE [14]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AMP [21]	41.32	4.71	46.32	13.79	36.81	5.22	37.68	15.74	49.48	4.20	36.16	18.26	41.73	4.85	41.77	19.20
ASE [22]	63.47	3.62	38.91	11.84	55.22	4.01	31.75	12.92	71.36	3.28	30.84	14.05	68.59	3.90	35.12	15.27
PULSE [19]	71.85	3.01	32.44	9.76	63.38	3.15	29.60	10.83	74.52	2.97	28.11	12.01	72.92	3.15	31.21	13.34
Ours	94.52	1.32	25.61	7.40	82.90	1.89	27.76	7.71	86.35	1.73	25.51	7.47	89.80	1.55	27.20	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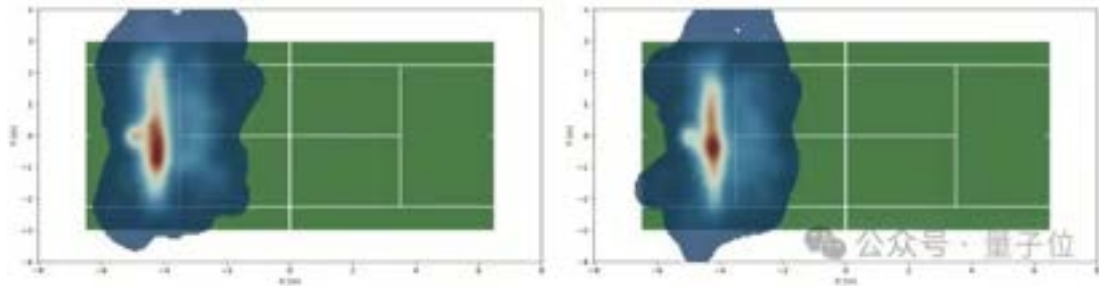
실제 환경에서는 사람과 로봇이 연속으로 랠리를 주고받는 실험을 20 차례 진행했으며, 포핸드와 백핸드, 전위와 후위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검증이 이뤄졌다.

Method	Forehand		Backhand		Forecourt		Backcourt	
	SR↑	DE↓	SR↑	DE↓	SR↑	DE↓	SR↑	DE↓
w/o DR	16.67%	5.60	25.00%	4.57	28.57%	3.59	14.29%	6.23
w/o ON	<u>50.00%</u>	<u>3.28</u>	0.00%	N/A	28.57%	3.69	<u>37.50%</u>	<u>3.97</u>
Ours	90.90%	3.15	77.78%	3.89	88.89%	3.57	81.82%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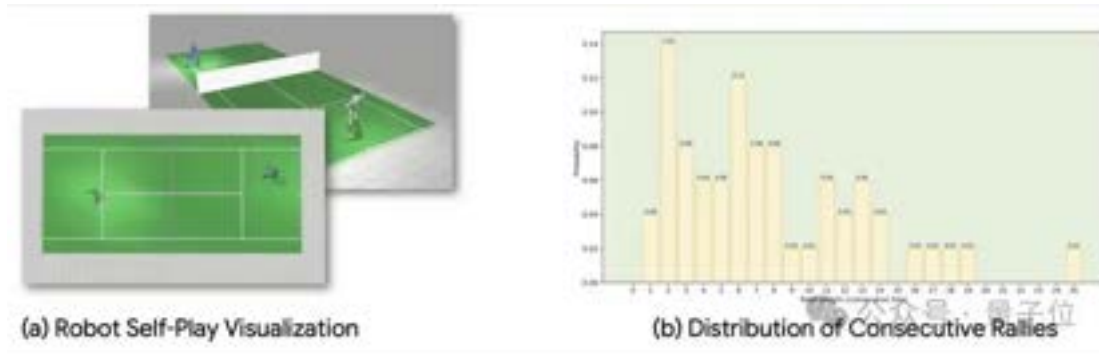
현실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에서 바닥의 탄성, 공기 저항, 공의 상태, 로봇의 동역학 등에 무작위 변화를 주고, GPU 기반 대규모 강화학습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LATENT 는 다양한 환경과 플레이 조건에서도 높은 성공률과 정확도를 유지했다. 특히 도메인 랜덤화와 관측 노이즈를 적용한 것이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테스트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추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LATENT 를 적용한 로봇은 코트 전반을 움직이며, 다양한 방향의 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과의 대결뿐 아니라 로봇 간 연속 랠리도 구현해, 향후 로봇의 자율 학습과 성능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로봇이 사람처럼 이동하고 판단하며 복잡한 운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휴머노이드의 활용 범위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LATENT 는 이러한 변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성과는 갈봇(GALBOT, 银河通用)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이어온 결과다. 갈봇은 피지컬 AI 모델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갈봇은 2023 년 5 월 설립됐으며, 올해 2 월 약 25 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 가치는 210 억 위안 이상에 달해, 현재 중국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기록한 비상장 기업으로 평가된다.

춘완(春晚)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갈봇(Galbot)의 저력 뒤에는 하드웨어와 모델, 생태계를 아우르는 완벽한 기술 폐쇄망(Closed-loop)이 자리 잡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휠 기반 양팔 로봇 'G1'은 효율적인 접이식 구조를 채택해 바닥부터 최대 2.4m 높이까지 작업이 가능한 유연성과 성능 확장성을 확보했으며, 기술적으로는 '시뮬레이션 위주, 실물 로봇 보조' 방식의 온·오프라인 결합 훈련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업계의 고질적인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으

로 생성한 100 억 건 규모의 데이터셋을 통해 가상 세계의 학습을 실전으로 연결하는 'Sim2Real'의 완벽한 전이를 실현하며 임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AI)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깬봇의 기술은 제조, 유통, 물류, 의료 및 실버케어 등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로봇을 실험실에서 끌어내 실제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안착시키며 거대한 구체화 지능 생태계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 신랑차이징(新浪财经). 휴머노이드 로봇 '테니스 선수' 등장, 사전 프로그래밍 없이 장거리 랠리 구현
<https://baijiahao.baidu.com/s?id=1859776685508085446&wfr=spider&for=pc>

[산업 트렌드] '랩스터 열풍'이 촉발한 'DIY 경제' 트렌드

2026년 초,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가 이른바 '랩스터 열풍'을 일으키며 개인이 직접 만들어 쓰는 'DIY 경제'를 화두에 올렸다. 'DIY(手搓)'는 원래 게임에서 외부 프로그램 없이 직접 조작하는 방식을 뜻했지만, 이제는 AI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기술 장벽이 낮아지고 개인화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같은 흐름은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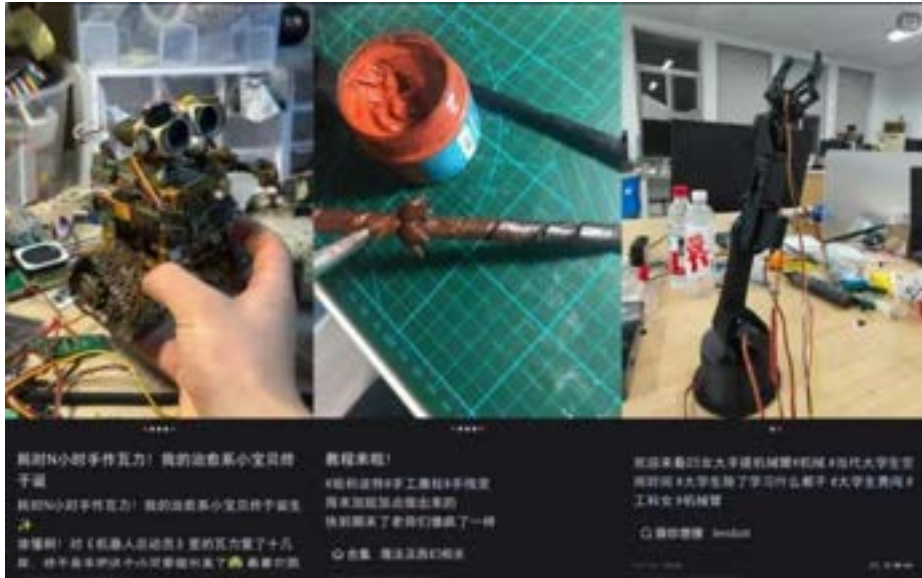


'DIY 경제'는 디지털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써 기업 연구소에 머물던 혁신을 일반 개인도 쉽게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AI 툴은 이제 범용 작업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일반 사용자들도 자연어만으로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 같은 전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픈클로와 같은 툴을 활용하면 전자상거래나 영상 애플리케이션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이제는 개발의 초점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그만큼 혁신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진 셈이다.



유연한 공급망의 확산으로 '1인 공장', 즉 개인도 생산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선전(深圳)의 자리창(嘉立創)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소량 생산이 가능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생산까지 전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 이로써 개인 창작자도 산업 수준의 생산 체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지식 공유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깃허브(GitHub)의 코드 공유, 빌리빌리(Bilibili)의 튜토리얼 콘텐츠, 샤오홍슈의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개인 개발자들은 기존 자료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시행착오에 드는 시간도 줄었고, 개발 방식 역시 장기 프로젝트 중심에서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개선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기반을 마련했다면, Z 세대가 만들어낸 다양하고 세분화된 수요는 'DIY 경제'의 확산을 이끄는 요인이다.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이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는 기업의 제품이 평균적인 수요에 맞춰 설계되기 때문에, 개인의 세밀한 요구까지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1인 가구의 정서적 니즈나 서브컬처 집단의 정체성 표현 등 영역이 'DIY 경제'가 성장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스러마(死了么)', '캣필라이트(小猫补光灯)'와 같은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 주목받은 것도, 기존 시장에서 놓치고 있던 수요를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다. 'DIY 경제'의 핵심은 개발자가 곧 사용자라는 점에 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해결책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제품 자체에 제작자의 이야기가 담긴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기능뿐 아니라 제작자의 관점과 제작 과정까지 함께 소비한다. 제작 과정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면서 제품은 하나의 콘텐츠로 확장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감정적 연결은 대량 생산 제품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가치가 된다.

개인의 창작 열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유통 채널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한다.

최근 중국의 각 지방 정부도 'DIY 경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상하이(上海) 린강(临港)은 '슈퍼 개인 288 프로젝트(超级个体288行动)'를 통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사무 및 주거 지원 공간을 조성했으며, 항저우(杭州) 상청구(上城区)는 공간, 자원, 금융, 활용 환경, 인재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 전 세계 개인 창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저장성(浙江)에서는 협업 공간과 산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인 기업'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WaytoAGI'와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매월 AI 교류 행사를 열어 개인 창업자 간 협력을 지원한다. 이제는 컴퓨터 한 대와 AI 툴만으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시장에 연결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셜미디어는 'DIY 경제'의 수익화 경로를 넓히고 있다. 창작자는 더우인(抖音), 샤오홍슈(小红书), 빌리빌리(Bilibili)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지역이나 오프라인 행사 없이도 제품 제작 과정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잠재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고, 이를 통해 전국 단위로 주문을 확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인 구조는 창작자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신흥 경제 형태인 'DIY 경제'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이디어는 쉽게 확산되지만,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생성형 AI로 개발 문턱이 낮아지면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하나의 아이디어가 주목 받으면 유사한 서비스가 수십, 수백 개씩 등장한다. 개인 개발자는 운영이나 권리 보호 역량이 미흡해, 창작 결과가 쉽게 침해될 수 있다.

일부 개발자들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기능 완성도나 호환성,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품질과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도적 기반 역시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 AI 기반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나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영역으로, 이는 산업 발전의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제도 역시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 개인 개발자를 위한 명확한 규정 가이드라인과 낮은 비용의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유연한 세제 정책과 효율적인 지적권 등록 체계를 통해 제도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업계는 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지적권 부처는 신속한 권리 보호 절차를 갖춰야 한다. 플랫폼 역시 창작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개발자의 창작 성과를 보호해야 한다. 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 과정에 AI 툴 활용을 도입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창작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DIY 경제'는 작은 시도에서 출발했지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DIY' 흐름은 개인의 작은 시도를 넘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 저장문화산업(浙江文化产业). '랩스터 열풍'이 촉발한 'DIY 경제' 트렌드
<https://mp.weixin.qq.com/s/8yrfpZEIXrc4y9ASLQJWSQ>

[기업 리서치] 범용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미니맥스(稀宇科技)



기업 개요

미니맥스(MiniMax, 稀宇科技)는 범용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이다. 2022 년 초 설립된 이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고, 범용 인공지능(AGI) 구현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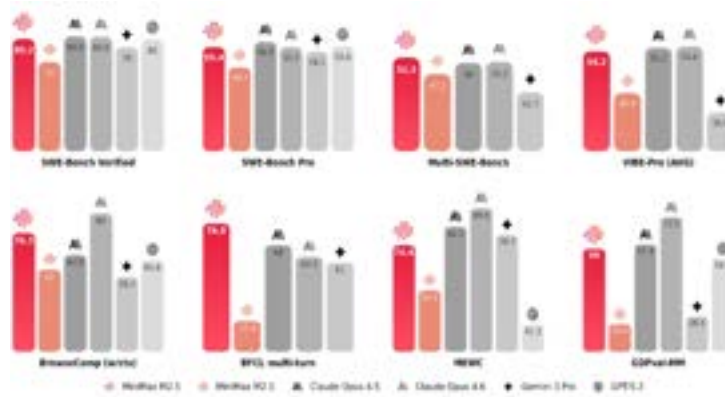
미니맥스는 MiniMax M2.1, Hailuo 2.3, Speech 2.6, Music 2.0 등 멀티모달 범용 대형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이들 모델은 코드 생성과 에이전트 수행 능력, 초장문 컨텍스트 처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생성 및 통합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MiniMax Agent, 하이뤄(海螺) AI, MiniMax Audio, 싱예(星野) 등 다수의 AI 네이티브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으며, 또한 기업과 개발자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미니맥스는 이를 통해 전 세계 사용자에게 고도화된 AI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체 개발 모델의 빠른 고도화는 미니맥스의 글로벌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니맥스의 멀티 모달 모델과 AI 네이티브 제품은 전 세계 200 개국 이상에서 2 억 1,200 만 명이 넘는 개인 사용자를 확보했다. 또한 100 개국 이상에서 13만 명이 넘는 기업 고객과 개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폴스택 모델 라인업

■ MiniMax M2.5

미니맥스 M2.5 는 복잡한 작업을 세분화하는 능력과 추론 과정에서의 토큰 사용 효율을 개선해, 에이전트 기반의 복합 업무를 더 빠르게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SWE-Bench Verified 테스트에서는 이전 버전인 M2.1 대비 작업 처리 속도가 3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초당 100 토큰 출력 기준으로 1시간 연속 구동 시 약 1달러가 소요된다. 초당 50 토큰 기준으로는 1시간 당 약 0.3달러 수준이다. 이를 환산하면, 1만 달러로 에이전트 4개를 1년간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 MiniMax Speech 2.6

2025년 10월 30일, 미니맥스는 최신 음성 모델 'MiniMax Speech 2.6'을 공개했다. 음성 생성의 종단 간 지연 시간은 250 밀리초 미만에 달했다. 또한 Speech 2.6은 'Fluent LoRA' 기능을 지원해 음색을 재현함과 동시에 입력된 텍스트에 맞춰 자연스럽게 유창한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



■ MiniMax Hailuo 2.3

미니맥스는 10월 28일 최신 영상 생성 모델 'Hailuo 2.3'을 공식 발표했다. 하이뤄(海螺) 2.3은 인물의 동작과 미세한 표정, 스타일 구현, 물리적 자연스러움 부분에서 크게 향상된 성능을 자랑했다. 보다 자연스럽게 복잡한 움직임 구현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과 수묵화 등 다양한 화풍을 지원한다. 또한 동작 지시에 대한 반응 정확도가 높아져, 생성된 화면의 완성도는 실제 촬영 영상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MiniMax Music 2.5

이 모델은 곡의 구성을 문단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능과 실제에 가까운 음향 재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구현했다. Intro, Bridge, Hook 등 14 가지 음악 구조 태그를 지원하며, 중국어 가요과 랩, 중·영 혼합 장르 등에 대응이 가능하다. 보컬 합성, 스타일 모델링, 믹싱 기술을 개선해 자연스러운 전환음과 바이브레이션, 남녀 듀엣 오디오 등을 구현할 수 있으며, 100 종 이상의 악기 음색 라이브러리도 함께 제공한다. 현재 API 형태로 공개돼 있으며, 영화·드라마 음악 제작, 게임 오디오, 전문 녹음 등 분야에서 산업용 수준의 제작 역량을 지원한다.



주요 제품

■ MiniMax : 지능형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미니맥스는 자연어 명령만으로 다양한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미니맥스 에이전트는 하나의 작업 환경에서 계획 수립과 추론을 거쳐 코드 작성, 리서치, 문서 초안 작성,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 복합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MiniMax Agent, 让你的工作更轻松



■ 하이뤄(海螺) AI : 시각 생성 플랫폼

하이뤄 AI는 사용자 입소문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글로벌 주요 AI 이미지·영상 생성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웹과 앱 환경에서 고품질 이미지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다.

让你的创意
变成视觉大片



■ MiniMax 음성: 오디오 생성 도구

미니맥스 음성은 고품질 음성 생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웹 환경에서 상호작용형 음성 합성이 가능하며,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완성도 높은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

让文字栩栩如“声”



■ Talkie/싱예(星野) : 멀티모달 상호작용 플랫폼

Talkie(글로벌 시장용)와 싱예(중국 내수 시장용)는 AI 기반 멀티모달 상호작용 플랫폼이다.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AI 에이전트나 가상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정서적 교류를 이 어갈 수 있다.



참고자료

- ◆ 미니맥스 웹사이트(稀宇科技官网)
<https://www.minimaxi.com/>
- ◆ 쇠치우(雪球). 미니맥스는 글로벌 AI 대형 모형 제작 회사
https://xueqiu.com/4339307364/368572121?_ugc_source=ugcbaiducard

[기업분석] 소비자 전자, 스마트 제조 기업-샤오미(小米)

기업 개요

샤오미(小米) 그룹은 2010년 4월 설립된 소비자 전자, 스마트 제조 기업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 하드웨어, IoT 플랫폼을 핵심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8년 7월 9일 홍콩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했다(종목코드 1810).

샤오미는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 가운데 하나로, 출하량 기준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6월 기준, 글로벌 MIUI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6억 6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세계적인 소비자용 AIoT(인공지능+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2023년 6월 30일 기준 연결된 IoT 기기 수(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제외)가 6억 5,500만 대를 기록했다.

사업은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으로 확장됐으며, 2023년 8월에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샤오미 그룹은 현재 항셱지수, 항셱 중국기업지수, 항셱 테크지수, 항셱 선저우(神州) 50 지수의 구성 종목이다.

샤오미 클라우드 서비스

샤오미 클라우드 서비스는 샤오미 그룹이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 저장 서비스다. 사진과 영상, 연락처, 문자, 메모 등 개인의 중요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여러 기기에서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샤오미 스마트폰과 태블릿, TV, IoT 기기 등에 탑재돼 있으며, Windows, Mac 용 PC 버전과 웹 버전도 함께 제공해 기기 간 연동을 지원한다.



샤오미 IoT

샤오미 IoT 개발자 플랫폼은 소비자용 스마트 하드웨어를 위한 개방형 협력 플랫폼이다. 개발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리소스와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고, 낮은 비용으로 제품의 지능화 수준을 빠르게 높일 수 있으며, 사용자들의 다양한 사용 니즈와 기대에 대응할 수 있다.

샤오미 IoT 개발자 플랫폼은 현재 10억 3,500만 대 이상의 스마트 기기를 연결하고 있다. IoT 제품을 5개 이상 보유한 사용자 수는 2,160만 명을 넘어섰다.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제품은 전 세계 약 1억 1,460만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플랫폼은 200개 이상의 제품 카테고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수십 개 카테고리 제품은 업계 선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샤오미 자동차

샤오미는 2021년 전기차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2024년 첫 제품을 출시했다. 샤오미 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사업이자, 사람과 차, 집을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샤오미 자동차의 총 인도량은 41만 대를 넘어섰다. 12월 한 달에만 5만 대 이상을 인도했고, 2026년 1월에도 3만 9,000대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시장의 수요와 브랜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창업자인 레이쥔(雷军) CEO는 2026년 연간 인도 목표를 55만 대로 제시했으며, 이는 샤오미 자동차의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출시 직후 화제를 모은 신형 모델 'YU7'은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인도량 15만 대를 넘어서며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샤오미 자동차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샤오미 평파이(澎湃) OS

샤오미 평파이 OS(Xiaomi HyperOS)는 샤오미가 '사람-차-집 연결 생태계'를 목표로 개발한 운영체제로, 2023년 10월 26일 공식 공개됐다. 이 시스템은 고도화된 안드로이드와 자체 개발한 Xiaomi Vela OS를 결합해 시스템 기반 구조를 재설계했다. 기존 MIUI와 Vela, Mina, 차량용 OS를 통합해 운영체제의 시스템 기반을 하나로 통합시켰다.

2025년 8월에는 평파이 OS 3가 발표됐다. 시스템 구동 속도와 생태계 간 연동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웨어러블 기기 지원도 시작했다. 평파이 OS는 샤오미의 '사람-차-집 연결 생태계' 전략의 핵심으로, 스마트 콕핏에 적용돼 생태계 연결을 완성했다.

참고자료

- ◆ 샤오미 웹사이트(小米官网)
www.mi.com/index.html
- ◆ 신랑망(新浪网). 샤오미 자동차, 판매량 60만 대 돌파...2026년 목표 55만 대 달성...신형 SU7 출시 임박
https://k.sina.com.cn/article_7857201856_1d45362c0019021fvq.html
- ◆ 바이두바이커(百度百科). 샤오미 평파이(澎湃) OS
<https://baike.baidu.com/item/%E5%B0%8F%E7%B1%B3%E6%BE%8E%E6%B9%83OS/63603810>

[기업분석] 범용 대형 모델 개발 스타트업-스텝펀(阶跃星辰)



기업 개요

스텝펀(StepFun, 阶跃星辰)은 범용 대형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범용 인공지능(AGI) 구현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2023년 4월 설립됐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연구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스텝(Step) 시리즈 범용 대형 모델을 공개해 언어, 멀티모달, 추론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모델 체계를 구축했으며, 개발자를 대상으로 업계 선도 수준의 멀티모달 대형 모델을 잇달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Step 시리즈 모델

■ 추론 대형모델

명칭	소개
step-3.5-flash	스텝펀의 대표 언어 추론 대형 모델로, 뛰어난 추론 능력과 빠르고 안정적인 실행 성능을 갖췄다. 복잡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분해 및 계획할 수 있으며, 도구 호출을 통해 논리 추론, 수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심층 연구 등 다양한 복합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컨텍스트 길이: 256K)
step-3	강력한 시각 인식과 복합 추론 능력을 갖춘 모델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이해와 수학 및 시각 정보 결합 분석, 일상 환경의 시각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컨텍스트 길이: 64K)
step-r1-v-mini	이미지 이해 능력을 갖춘 추론 대형모델로,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심층 추론을 거쳐 텍스트 결과를 생성한다. 시각 추론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수학·코드·텍스트 추론 능력도 갖췄다. (컨텍스트 길이: 100K)

■ 텍스트 대형모델

명칭	소개
step-2-mini	차세대 자체 개발 Attention 구조 MFA 기반의 초고속 대형 모델로, 낮은 비용으로 Step-1 과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면서 높은 처리량과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한다. 다양한 범용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코드 처리 능력이 강점이다. (컨텍스트 길이: 32K)
step-2	차세대 MoE 구조 기반 대형 모델로, 파라미터 규모가 1 조 개를 넘어선다. 성능과 사용자 체감 성능, 계획 능력에서 글로벌 주요 대형 모델 수준에 근접했으며, 중국어·영어 환경의 다양한 활용 요구를 지원한다. Scaling Laws 연구 성과가 반영된 모델이다.
step-1	Step-1 시리즈는 수천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클래식 아키텍처 기반 대형 모델로,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텍스트 작성,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질의 응답, 논리 추론 등 사용자의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수학과 코드 처리 능력도 갖추고 있어 과학 계산과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 실시간 음성 인터랙션 모델

명칭	소개
step-audio-2	중국어 표준어와 방언, 영어, 일본어를 이해하며 중국어와 영어로 대화형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주변 소리와 부언어적 신호,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음성을 통해 사용자 연령을 추정하거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말하기 속도와 억양, 감정을 조절해 표현할 수 있으며 Tool Call 과 인터넷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step-1o-audio	1세대 엔드투엔드 음성 모델로, 음성 생성 기능을 지원하며 다양한 음색 구현이 가능하다.

■ 비전 이해 대형모델

명칭	소개
step-1o-turbo-vision	이미지와 영상 이해 능력을 갖춘 모델로, 현재 텍스트·이미지·영상 입력을 지원하며 출력은 텍스트 생성 방식으로 제공된다. 수학·코드 처리 능력은 step-1o-vision-32k보다 우수하며, 모델 규모는 더 작고 출력 속도는 더 빠르다. (컨텍스트 길이: 32K)
step-1v	이미지 이해 능력을 갖춘 모델로, 현재 텍스트와 이미지 입력을 지원하며 출력은 텍스트 생성 방식으로 제공된다. (컨텍스트 길이: 8K / 32K)

■ 음성 대형모델

명칭	소개
step-tts-2	Step-TTS-mini 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간결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기존 speaker/emotion 임베딩 모듈을 제거하고 순수 NTP 기반의 엔드투엔드 음성 생성을 구현해 시스템 복잡도를 낮췄다. Step-TTS-mini 의 음색·감정·스타일·언어를 모두 지원하며, 감정과 스타일의 제어 능력, 감정 표현력, 음색 재현 성능을 강화했다.

■ 이미지 생성·편집 모델

명칭	소개
step-2x-large	스텝펀의 차세대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미지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졌으며 중국어와 영어 텍스트 표현 생성 능력도 강화됐다.
step-1x-edit	이미지 편집에 특화된 모델로, 이미지와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이미지 수정과 향상 작업을 수행한다. 텍스트 설명과 예시 이미지 등 다양한 입력 형식을 지원하며, 사용자 의도에 맞는 이미지 편집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 Model Lab

명칭	소개
Step-GUI	Step-GUI 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작업을 위해 설계된 멀티모달 비전 대형 모델이다. 시각 이해, 단계별 추론, 동작 실행을 결합해 다양한 GUI 환경에서 연속적인 다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스텝펀 웹사이트(阶跃星辰官网)
<https://www.stepfun.com/company>

[기업분석] 인공지능 기업-바이촨 인텔리전스(百川智能)



기업 개요

바이촨 인텔리전스(Baichuan Intelligence, 百川智能)는 2023년 3월 24일 왕샤오촨(王小川) 전 소거우(Sogou, 搜狗) CEO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이다. 회사는 언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의 핵심 대형 모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개발진은 소거우, 바이두,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주요 기술 기업 출신의 AI 연구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는 설립 100일만에 Baichuan-7B와 Baichuan-13B 두 가지 중국어 버전 대형 모델을 공개했다. 두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돼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여러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다운로드 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다.

제품 소개

■ 범용 모델

- Baichuan4-Turbo

기업 업무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모델이다. Baichuan4 대비 활용 가능성이 약 10% 이상 높아졌으며, 배포와 추론 비용이 낮고, 가격은 GPT-4o의 약 80% 수준이다. 첫 토큰 응답 속도와 토큰 처리 속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

- Baichuan4-Air

기업이 처음 도입한 PRI 아키텍처 기반 MoE 모델로, 기업 환경에 맞게 최적화됐다. 추론 비용을 크게 낮춰 호출 비용은 1,000토큰당 약 0.00098위안 수준이다. 모델 성능은 업계 상위권 수준이며 응답 속도 역시 주요 MoE 모델보다 빠른 편이다.

■ 오픈소스 모델

- Baichuan-M3 Plus

1월 22일 바이촨 인텔리전스는 Baichuan-M3 Plus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전문 의료 환경에서의 질의응답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앞서 발표된 M3 모델의 성능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6 개 출처 기반 근거 검증 기술과 M3 기반 모델을 결합해 환각 발생률을 2.6% 수준으로 낮췄으며, 이는 Open Evidence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근거 연결 기술'을 적용해 인용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AI 가 제시한 의학적 결론을 원 논문의 근거 구절과 연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의 의료적 판단을 검증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다.

또한 바이촨 인텔리전스는 '하이어나바이촨(海纳百川)' 계획을 발표하고, 근거 기반 의료 대형 모델을 API 형태로 중국 의료기관에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 Baichuan-M3

바이촨 인텔리전스는 1 월 13 일 차세대 오픈소스 의료 강화 대형 언어 모델 Baichuan-M3 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문진 능력과 의료 환각 제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HealthBench 와 HealthBench Hard 평가에서도 1 위를 기록했다. 성능 비교에서는 OpenAI GPT-5.2 를 앞섰으며, 일부 테스트에서는 의사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 Baichuan-M2-32B

Baichuan-M2-32B 는 바이촨 인텔리전스에서 출시한 두 번째 의료 추론 모델로, 의료 분야에 특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실제 의료 추론 작업을 위해 설계된 이 모델은 혁신적인 대규모 검증 시스템 (Large Verifier System)을 기반으로 Qwen2.5-32B 를 확장한다. 실제 의료 문제에 대한 도메인 별 미세 조정을 통해 탁월한 의료 성능을 달성하는 동시에 강력한 일반화 능력도 유지한다.

참고자료

- ◆ 바이촨 인텔리전스 웹사이트(百川智能官网)
<https://www.baichuan-ai.com/home>

[기업 리서치]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링이완우(零一万物)

零一万物

기업 개요

링이완우(零一万物, 01.AI)는 AI 2.0 대형 모델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이다.

기업은 출범 이후 오픈소스 모델을 잇달아 공개해 왔다. 2023년 11월에는 200K 컨텍스트를 지원하는 사전학습 모델 Yi-34B 을 발표해 HuggingFace 오픈소스 모델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024년 3월에는 코드 생성 능력을 강화한 Yi-9B 모델을 공개했고, 같은 해 5월에는 1,000억 파라미터 규모의 비공개 모델 Yi-Large 를 선보였다. 10월에는 경량화 플래그십 모델 Yi-Lightning 을 발표했으며, 이 모델은 글로벌 평가에서 6위를 기록했다. 이들 모델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모다(魔搭) 커뮤니티와 바이렌(百炼) 플랫폼을 통해 API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AI 업무 플랫폼 완즈(万知)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설립 8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4년 A 라운드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투자에는 글로벌 전략 투자자와 동남아 주요 투자 그룹이 참여했다. 2025년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산업용 대형 모델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다. 회사는 '2024 포브스 50대 중국 혁신 기업'과 '2024 후룬(胡润) 중국 AI 50대 기업'에 선정됐으며, 2025년에는 기업용 에이전트 '완자이(万仔)'를 출시해 정부와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AI 솔루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만즈(万智) 기업용 대형 모델: 만즈 2.5

1월 5일 링이완우는 기업용 대형 모델 원스톱 플랫폼 '만즈(万智)'를 2.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만즈 2.5는 기업 환경의 복잡하고 변화하는 업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코드 우선·모델 중심'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범용 AI 에이전트가 미리 설계된 워크플로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면, 만즈 플랫폼은 MCP(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와 보안 샌드박스 환경을 기반으로 멀티 에이전트 협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실제 기업의 운영 환경에 맞는 작업 수행이 가능하며, 산업 수준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Yi-Lightning

Yi-Lightning 은 링이완우가 2024 년 10 월 공개한 플래그십 대형 모델이다. 이 모델은 글로벌 블라인드 평가 플랫폼 LMSYS 대형 모델 아레나에서 종합 6 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GPT-4o 계열을 넘어서는 성능을 보였다. Yi-Lightning 은 자체 AI 인프라 역량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API 가격은 100만 토큰당 0.99위안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비용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업무 회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루이(如意)' 디지털 휴먼 솔루션을 출시해 '인프라·모델·응용'을 아우르는 AI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Rank* (US)	Rank (StyleCtrl)	Model	Arena Score	95% CI	Votes	Organization	License	Knowledge Cutoff
1	1	ChatGPT-4o-latest (2024-09-03)	1339	+4/-4	28488	OpenAI	Proprietary	2023/10
1	1	o1-preview	1335	+4/-5	17562	OpenAI	Proprietary	2023/10
3	3	o1-mini	1313	+4/-4	17919	OpenAI	Proprietary	2023/10
3	3	Gemini-1.5-Pro-002	1305	+5/-4	11430	Google	Proprietary	Unknown
4	3	Gemini-1.5-Pro-Exp-0827	1299	+4/-3	12437	Google	Proprietary	2023/11
6	6	Grok-2-00-13	1291	+3/-3	35661	xAI	Proprietary	2024/3
6	9	Yi-Lightning	1287	+5/-3	13262	01 AI	Proprietary	Unknown

최신 동향

링이완우는 2026 년들어 전략 실행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으며, 창업자인 리카이푸(李开复) CEO 의 최근 발언도 국가 산업 정책 흐름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2026 년 3 월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에는 처음으로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 구축'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리카이푸 CEO 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 탐색 단계를 넘어 산업 전반에 깊이 적용되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에 언급된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와 에이전트의 보급 확대' 정책 방향이 링이완우가 강조해 온 멀티 에이전트와 AI 네이티브 하드웨어 개념과도 방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리카이푸 CEO 는 특히 오픈소스를 중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강조했다. 그는 오픈소스가 기술 기반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춰 더 많은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AI 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각 산업에 맞는 심층적인 활용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이 '기업용 멀티 에이전트 도입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AI 의 역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는 개인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 여러 에이전트가 하나의 팀처럼 협업하는 조직의 핵심 역량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완성도 높은 산업 공급망과 다양한 제조 기반이 멀티 에이전트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 링이완우 웹사이트(零一万物官网)
<https://lingyiwanwu.com/>
- ◆ 베이징상보(北京商报). 링이완우 기업용 대형 모델 원스톱 플랫폼 '만즈(万智)' 2.5 버전 공개
<https://baijiahao.baidu.com/s?id=1853488307765118925&wfr=spider&for=pc>
- ◆ 메이르징지신원(每日经济新闻). 정부 업무 보고서에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 구축'이 처음으로 포함됨, 리카이푸 CEO: 오픈 소스 생태계를 활용하여 AI 2.0에서 "기초적 평등"과 "응용 분야의 도약" 달성
<https://www.mrjxw.com/articles/2026-03-05/4281116.html>

[기업 리서치] 기술 기반 유통 사업 기업-메이투안(美团)



기업 개요

메이투안(美团)은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으로, '리테일+기술' 전략 아래 '더 나은 식생활과 삶을 돕는다'는 사명을 추구하고 있다.

2010년 3월 설립 이후 서비스형 유통과 상품 유통 전반에서 수요·공급 측면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소비자 경험을 개선해 왔다. 메이투안은 2018년 9월 20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메이투안은 1만 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론트엔드(Web, iOS, Android), 백엔드, 시스템, 알고리즘, 테스트, 운영,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개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완성도의 기술 체계를 구축했으며, 주요 오픈소스 기술과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프라, 복잡한 비즈니스 시스템 플랫폼을 마련했다. 또한 운영, 보안,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함께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중심으로 엔지니어 조직을 강화해 왔다. 또한 복잡한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술 플랫폼과 중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도 적극 투자하며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업 소개

■ 핵심 로컬 서비스 사업

메이투안의 핵심 로컬 서비스 사업은 음식 배달을 중심으로, 매장 방문, 호텔 및 관광, 즉시 배송, 민박, 교통 티켓 예매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음식 배달 사업은 2010년 시작된 이후 중국 최대 규모로 성장하며, 현재 메이투안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매장 방문과 호텔·관광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메이투안과 디엔핑(点评)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신사업

신사업 부문에는 메이투안 요우쉬엔(优选, 공동구매), 메이투안 마이차이(买菜, 신선식품 배송), 콰이뤄(快驴, 식자재 공급망), 차량 호출, 공유 자전거·전동자전거, 보조배터리 대여, 레스토랑 관리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메이투안 요우쉬엔과 메이투안 마이차이는 리테일 영역 확장을 위한 핵심 신사업이다. 메이투안 요우쉬엔은 2020년 7월 출범한 커뮤니티 기반 이커머스 서비스로, 사전 주문 후 지정 장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1,000만명 이상에 달한다. 메이투안 마이차이는 기존 샤오상(小象) 사업에서 출발했으며, 근거리 배송 창고 모델을 기반으로 신선식품의 즉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메이투안 요우쉬엔과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메이투안 테크

■ 롱캣(LongCat)

롱캣(LongCat)은 메이투안이 자체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한 멀티모달 대형 언어모델 시리즈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다.

2026년 2월 11일에는 롱캣(LongCat) 기반의 심층 연구형 AI 에이전트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실제 도구를 활용해 생활 서비스와 관련된 복잡한 검색과 일정, 활동 계획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맞춤형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외식, 여가, 생활에 대한 종합 가이드를 제공한다.



■ 노코드(NoCode)

2025년 6월 10일 메이투안은 AI 코딩 에이전트 '노코드(NoCode)'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자연어 기반 대화를 통해 코딩과 배포를 자동으로 수행하며, 데이터 분석과 프로토타입 설계 등에 활용된다.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대화만으로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다.



■ 드론

메이투안은 도시 저도고 경제 분야에서 드론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자율비행 드론과 물류 이착륙 스테이션, 드론 운영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안정성과 효율성, 경제성, 자율 운영 체계를 확보했으며, 현재는 야간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드론 서비스는 오피스, 주거 단지, 관광지, 공원, 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13만 종 이상의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



■ 무인 배송차

메이투안의 무인 배송차는 자체 개발한 L4 수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즉시배송 사업과 연계해 도로, 캠퍼스, 주거 단지, 산업단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자동 배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샤오황펑(小黄蜂)' 실내외 체화지능 배송 로봇

실내외 체화지능 배송로봇은 폐쇄 및 반폐쇄형 공간의 라스트마일 즉시배송을 위해 개발됐다. 자체 개발한 멀티모달 인지, 장면 이해, 위치추정·내비게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쇼핑몰, 아파트, 공항, 주거단지, 공원 등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안전한 무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메이투안 웹사이트(美团官网)
<https://www.meituan.com/>
- ◆ 스외치우(雪球). 메이투안 가치평가(상) 250320
<https://xueqiu.com/2099112062/336181463>
- ◆ 신랑차이징(新浪财经). LongCat, 자체 개발 "심층 연구" 에이전트 출시
<https://baijiahao.baidu.com/s?id=1856817442070791236&wfr=spider&for=pc>
- ◆ 진룽지에(金融界). 메이투안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래밍 도우미 '노코드(NoCode)' 출시, 프로그래밍 무 경험자도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baijiahao.baidu.com/s?id=1834532248718609123&wfr=spider&for=pc>

[시장 인사이트] 오르도스 하이테크구

개요

■ 허가 일자

오르도스 하이테크구는 2017년 설립

■ 주요 산업

첨단 장비 제조, 석유 기술, 바이오 의약,

■ 주요 지표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등록 기업 수	1396 개	2100 개	50.43%↑
총 자산	650.22 억 위안	816.06 억 위안	25.51%↑
하이테크 기업	53 개	75 개	41.51%↑
영업 수익	180.83 억 위안	189.78 억 위안	4.95%↑

오르도스(鄂尔多斯) 하이테크구는 2011년 5월 조성됐으며, 2017년 2월 국무원 승인을 거쳐 국가급 하이테크구로 지정됐다. 이후 국가 청정에너지 국제혁신단지, 국가 기술기업 인큐베이터, 국가 영세·중소기업 창업혁신 시범기지, 국가 횡불(炬火) 프로그램 오르도스 자동차 및 핵심 부품 특화 산업기지 등으로 잇달아 선정됐다.



오르도스 하이테크구는 첨단 장비 제조, 첨단 신소재, 석유 기술, 바이오 의약, 디지털 경제 등 5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에너지 장비 제조 산업의 규모 확대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첨단 캐시미어 방직 산업의 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화다지인(华大基因, BGI), 상더야오위안(尚德药缘, Accendatech) 등 핵심 기업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 의료·건강 분야의 응용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이와 함

개 지역 최초의 바이오의약 산업단지 조성도 진행 중이다. 현재 개발구에는 각종 연구개발 기관 40곳이 설립돼 있으며, 입주 기업은 400여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규모 이상 산업기업은 30곳으로, BOE(京东方), 치루이자동차(奇瑞汽车), 샤먼진룽(厦门金龙), CRRC(中车), 오르도스그룹(鄂尔多斯集团) 등 주요 기업이 입주해 있다. 또한 첨단기술기업 75개(시 전체의 26%),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138개(시 전체의 24%)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4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개발구는 자치구로부터 '우수 과학기술 혁신 산업단지'로 평가받았다. 인재 기반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국가급 첨단 인재 21명, 혁신·창업 인재 80명, 첨단 혁신팀 5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치구 최초로 '겸직 원사' 제도도 도입했다.

[시장 인사이트] 선양 하이테크구

개요

■ 허가 일자

선양 하이테크구는 1991년 설립

■ 주요 산업

스마트 제조, 차세대 정보 기술, 바이오 의약,

■ 주요 지표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순이익	119.39억 위안	432.61억 위안	262.34%↑
영업 수익	2,077.16억 위안	4,857.32억 위안	133.84%↑
공업 총생산액	1,341.56억 위안	3,957.91억 위안	195.02%↑
총 자산	3,903.98억 위안	5,747.48억 위안	47.22%↑

선양(沈阳) 하이테크구는 1988년에 설립됐으며, 1991년 국가급 하이테크구로 지정됐다. 관리위원회는 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가 파견한 기관으로, 부청(副厅)급에 해당한다. 개발구 당공위와 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시 당위원회 및 시 정부가 훈난구(浑南区) 당위원회와 구 정부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당공위 서기는 훈난구 당위원회 서기가 겸임하고, 당공위 부서기 겸 관리위원회 주임은 구장(区长)이 담당하고 있다.



선양 하이테크구의 계획 면적은 170.3 km²이며, 선양시 행정 중심이자 선대(沈大)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선양 편구의 핵심 지역이다. 국가급 과학기술 서비스업 시범지역, 창업·혁신 시범기지, 국가 산학연

협력 시범기지, 국가급 신형 공업화 산업 시범기지, 국가급 지식재산권 시범단지, 국가 전역 관광 시범구, 국가 문화산업 시범구, 국가 집적회로 장비 첨단기술 산업화 기지, 국가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국가 1차 노후 공업기지 산업 전환·고도화 시범구, 국가 1차 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됐다. 2022년 선양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는 <선양 국가 하이테크구 고품질 발전 촉진 시행 의견(沈阳市促进沈阳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高质量发展实施意见)>을 발표하고 '1개의 구 3개의 단지' 발전 모델 개편을 본격화했다. '1개의 구'는 훈난 편구를, '3개의 단지'는 허핑(平分), 황구(皇姑), 다둥(大东) 단지를 의미하며, 전체 면적은 357 km²로 확대됐다.

[KIC 중국 포커스] 2026 중관촌포럼: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 포럼 성황리 개최

3 월 26 일, 중국 국가급 국제행사인 '2026 중관촌포럼'의 별도 세션으로 마련된 '한·중 과학기술 혁신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2022 년부터 4 년 연속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며 양국 기술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중 피지컬 AI 기술혁신"을 주제로 AI 와 로봇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화 및 응용 시나리오를 집중 조명했다. 양국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은 피지컬 AI 의 기술 혁신, 산업 협력, 투자 연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옌잉(燕瑛) 베이징시 정협(北京市政协)주석은 베이징이 AI 로봇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응용 시나리오, 데이터 자원, 혁신 창업 생태계 등 베이징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의 피지컬 AI 제조 경쟁력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중관촌 포럼을 통해 우수한 교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청년 인재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동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大韩民国驻中国大使馆) 경제공사는 AI가 데이터 분석 중심에서 자율적 의사결정과 물리적 실행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가 노동력 부족 해소와 제조업 혁신,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은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 단계를 넘어 양산으로 이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지적했다. 첫째, 핵심 부품 공급망이 불안정해 정밀 감속기,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업스트림 단계의 특수 소재 확보도 어려운 상황으로, 정밀 감속기에 쓰이는 베릴륨 동합금을 비롯해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 소재의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한·중 과학기술혁신포럼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피지컬 AI 라는 차세대 산업 혁신의 거대한 파도를 앞두고 한·중 양국이 어떻게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 나



침반과 같은 의미를 지닌 자리였다”고 밝혔다.

송하이타오(宋海涛) 상하이 인공지능연구원(上海人工智能研究院) 원장은 2025년 중국 내 피지컬 AI 분야 투·융자가 500 건, 총 600 억 위안 규모를 기록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반에 투자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특히 하드웨어에서는 감지 센서의 범용화가, 소프트웨어에서는 시뮬레이션-현실 전이(Sim-to-Real) 및 인간 지능과 AI의 융합 기술이 핵심 동향으로 제시되었다.

신상열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관은 한국의 피지컬 AI 발전 방향으로 범용 기술 강화, 주요 산업의 자율화 수준 제고,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조선·자동차·정밀 제조 등 국가 주력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한편, AI 활용이 제도와 윤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및 정책적 보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관촌즈용(中关村智用) AI 연구원 순밍진(孙明俊) 원장은 서로 다른 로봇 시스템 간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는 점이 현재 피지컬 AI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서 로봇 기업마다 서로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관촌즈요우(中关村智友) 연구원 잉위페이(英语霏) 부원장은 표준뿐 아니라 제품과 기술 측면에서도 한·중 양국은 각자의 경쟁력 활용을 통한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핵심 부품과 온디바이스 칩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헬스케어, 돌봄 등 특정 활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터와 활용 환경을 공유함으로써 피지컬 AI의 실제 적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 베이징 비즈니스투데이(北京商报).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 포럼 개최, 체화지능 협력 기대 확대 <https://baijiahao.baidu.com/s?id=1860729272165772575&wfr=spider&for=pc>

[KIC 중국 포커스] KIC 중국,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 발간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2026년을 맞아 한국 기술 기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중 간 기술·산업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의 일환으로,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책자는 중국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5대 도시군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생태계와 정책 환경, 주요 기술 트렌드, 그리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실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시장 개요를 넘어, 실제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산업 정보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바이두, 도우인, 화웨이 등 중국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들의 성장 사례와 기술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이 속한 도시군의 산업적 강점과 연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금융·투자 환경, 세제 지원 제도 등 첨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폭넓게 다뤄, 중국 AI 시장의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 전반에는 베이징 현지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가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최신 데이터가 반영돼 현장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진출 전략과 협력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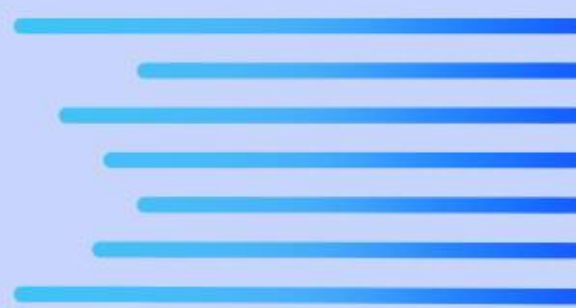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이번 발간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한·중 기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산업 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국 간 기술·산업 협력의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보아오 아시아 포럼 2026 연례 회의	2026.03.24-2026.03.27	치웅하이	금융
제 16 회 중국 국제 청정에너지 박람회	2026.03.25-2026.03.27	베이징	에너지
2026 년 제 18 회 국제 석유 및 가스 산업 정상회의	2026.03.26-2026.03.27	베이징	에너지
해양 통신, 네트워크 및 신호 처리 국제 컨퍼런스 (MCNSP2026)	2026.03.27-2026.03.29	산야	전자통신
인공지능 및 공학 국제 컨퍼런스(AI+E2026)	2026.03.27-2026.03.29	샤먼	인공지능
제 2 회 인공지능 및 재료 국제 학술대회 (ICAIM2026)	2026.03.27-2026.03.29	창사	인공지능
2026 년 제 8 회 중국 국제 생물의학 학술대회 및 전시회	2026.04.09-2026.04.11	베이징	의료건강
제 12 회 국제 안티몬 포럼	2026.04.09-2026.04.10	청두	에너지
제 6 회 인공지능 및 산업기술응용 국제 컨퍼런스(AIITA2026)	2026.04.10-2026.04.12	충칭	인공지능
2026 년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2026.04.13-2026.04.14	홍콩	전자통신
GEIAAsia 2026 아시아 태평양 엠보싱 인텔리전스 및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주간	2026.04.14-2026.04.17	상하이	인공지능
제 18 회 국제 디지털 이미지 처리 학회 (ICDIP2026)	2026.04.24-2026.04.26	샤먼	인공지능
제 9 회 국제 환경 및 에너지 공학 컨퍼런스 (IC3E2026)	2026.04.24-2026.04.26	창사	에너지
제 41 회 중국자동화협회 청년과학자연례대회 (YAC2026)	2026.05.08-2026.05.10	창사	인공지능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월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